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트릭스터 원형을 중심으로

노 명 선*

국문 초록

본 논문을 통해 한국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의 심리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민담 속 주인과 하인의 대립은 보편적인 인간 정신의 문제로, 경화된 기존의 집단적 의식과 이를 보상하고 갱신하려는 새로운 의식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보자면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본능적인 측면 사이의 혹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립이며,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담 속 주인은 애먹이는 막내 하인을 없애버리려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하인은 피와 속임수를 써서 주인으로부터 음식과 말(馬), 막내 누이, 전 재산, 마침내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고, 이야기는 막내 하인과 막내 누이의 혼인 생활로 끝을 맺는다. 주인이 죽고 하인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대극반전(enanti-dromia)은 낡은 집단적 의식이 파괴되고 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온 새로운 의식이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자아의 태도가 해소되고 새로운 태도로 변환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야기의 중간 과정에서 하인은 그를 죽이려고 주인이 써준 등편지를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새롭게 바꿔 써서 막내 누이와 혼인한다. 이 모습은 집단적 의식의 도덕관념에서는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아낙네, 꿀장수, 배고픈 중으로 상징되는 조선 시대 집단적 의식에서 무시되어오던 정신요소를 통합

접수일 : 2022년 10월 19일 / 심사완료 : 2022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1일

*노명선정신건강의학과의원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Myoungsun Roh, M.D., Ph.D., Dr. Roh's Psychiatric Clinic, 523 Seolleung-ro, Gangnam-gu, Seoul, Korea

Tel: +82-2-6205-7400, Fax: +82-2-6205-7401, E-mail: rohsclinic@gmail.com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인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의식성은 기존의 틀에 구속받지 않는 트릭스터적 특성을 갖기에 집단적 의식에서 무시되어온 정신적 내용을 통합하여 조선 후기 집단적 의식에 대한 보상과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은 다시 하인을 죽이려고 하인을 가죽 부대에 넣어 나무에 매다는데, 가죽 부대 속에 들어가 매달렸더니 눈을 떴다는 하인의 속임수에 넘어간 소경이 대신 매달려 죽고 하인은 달아나게 된다. 주인과 하인의 대극 문제가 마침내 나무로 상징되는 전체 정신(Self)에 맡겨지자 소경이 제거되는 것은 트릭스터에 포함되어있는 맹목성, 어리석음, 탐욕적 요소를 구분하고 정화하려는 자기(Self)의 의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집단적 의식의 새로운 변화 혹은 새로운 자아의 태도를 상징하는 하인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나 꽤 많은 하인의 활약상을 들으며 청중들은 유쾌함과 해방감을 느끼는 한편, 소경이 대신 죽고 주인집 식구가 몰살되고 하인이 주인이 되는 부분에서는 하인의 위험성과 통제 불가능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해외 유희들에 등장하는 트릭스터들 역시 철저히 이기적이고 오직 욕구를 채우고 위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고한 존재들을 속이거나 죽게 만드는데, 이들 트릭스터를 처단하거나 교화하려는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은 달아나버린다. 그러므로 본 민담 역시 이런 원형적 그림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의식이 통제하거나 의식에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외경하고 관조하도록 하는 목적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릭스터는 기존의 구조와 질서가 경화되었을 때 보상작용으로서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재생시키는(reviving) 자연 에너지의 비합리적 발현 양상이다. 그 현상은 기존의 집단적 정신의 입장에서는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일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 정신인 집단적 무의식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트릭스터 원형상으로 볼 수 있는 하인은 변환을 가져오는 존재로 파괴성과 창조성이라는 양면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본 민담의 유희들의 결말은 여러 갈래인데 이는 트릭스터의 양면성으로 인해 청중의 마음 반응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트릭스터 문제에 대한 무의식의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트릭스터란 그만큼 결론이 안 나고 논란을 일으키는 모순덩어리 존재로 의식적 합리적 태도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

의 트릭스터 원형에 대해 진지하게 관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심 단어 : 그림자; 민담; 선과 악; 창조성; 트릭스터; 파괴성.

들어가는 말

우리의 꿈에 나타나 속임수로 무언가를 빼앗아가거나 엉뚱한 일을 벌여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기꾼 같은 인물들은 꿈꾼 이를 당황스럽고 불쾌하게 만든다. 그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열등한 인물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꿈꾼 이는 그들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지만 이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후라 망연 자실하며 꿈이 끝나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기꾼 같은 인물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때로는 꿈꾼 이에게 평소와는 다른 결단을 내리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이들의 꿈에 이러한 인물들이 출현하며, 신화와 민담, 해학문학 등의 영역에서도 사기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래했다는 것은 ‘사기꾼’이 원형상의 하나이며 인간의 심성에 그러한 상징으로 표현되는 보편적인 정신적 요소가 존재하고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민담대백과¹⁾에 따르면 ‘트릭스터(trickster)’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기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19세기 말 민담 연구를 통해 등장하였다. 트릭스터는 구원자의 기능까지도 해낼 수 있는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물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동물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며 오직 자기 사리사욕에만 골몰하는 떠돌이이고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이고 반사회적 인물이다. 영리하고 교활하지만 어떨 때는 우둔하게 행동해서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 한편 신화적 상황에서 트릭스터는 데미우르고스(조물주), 문화영웅, 이타적 구세주가 되어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을 뛰어 넘어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하다.²⁾

트릭스터라는 용어는 1885년 미국인 브린턴(D.G. Brinton)의 사전적 주해서

1) Rankle K, et al. (2010): *Enzyklopädie des Märchens*. vol 13. De Gruyter, Berlin, pp914-924.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의 트릭스터 연구사는 본 책자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2) 트릭스터 원형상은 사기, 기만, 해악을 끼치는 교활한 사기꾼 인물상과 사기꾼의 면모와 문화영웅적인 면모라는 이중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문화영웅적 사기꾼 혹은 신화적 사기꾼 인물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 처음 등장하며, 브린턴은 이미 그의 저서 <신세계의 신화들>에서 그 개념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북미의 사기꾼 인물들을 모아서 체계화했다. 이후 민담 서술식 저작물들에서 1896년경부터 트릭스터란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독일어권에는 1924년 크리케베르그(W. Krickeberg)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그는 <구세주와 교활한 음모꾼>이라는 이중역할을 하는 갖가지 동물주인공들에 대해 트릭스터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트릭스터 개념은 1916년에는 오세아니아 신화 연구에, 1925년에는 아프리카 신화 연구에도 등장했다. 1950년대 초 이후로 이 개념이 비교 설화 연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트릭스터는 '영리한 영웅(clever hero)'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화적 사기꾼(혹은 문화영웅 사기꾼)은 교활한 사기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트릭스터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저술로는 북미 원주민 위네바고(Winnebago)족 트릭스터 민담의 주인공인 왁준카가(Wakdjunkaga, 술수에 능한 자)에 대한 라딘(P. Radin)의 저서 <사기꾼(Tricksters)>을 들 수 있다.³⁾ 라딘은 왁준카가가 반사회적이고 본능적인 존재에서 인간과 자연에 도움이 되는 의식적 존재로 성장하여 인간의 모습을 띠도록 변화되며, 그것은 영웅의 내적인 발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같은 저서에서 융(C.G. Jung)은 <트릭스터상의 심리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민담에 등장하는 바보, 열간이, 사기꾼 등에서부터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 중세유럽 교회의 카니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트릭스터 원형상에 관해 이야기하였다.⁴⁾ 그는 트릭스터는 절대적으로 미분화된 인간 의식으로서 동물의 정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즉 의식의 매우 초기 단계로, 선악과 같은 분별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이전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 현대에서는 사회의 질서, 종교, 의식의 짐스러운 의무로부터 인간 정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출구로서 작용하는 풍자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 민담에서도 트릭스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피쟁이 하인', '상전 골려 먹은 방학중', '상전을 속인 하인' '양반 골린 애뜨기' 등 상전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하인에 대한 민담들이 매우 많이 전승되고 있다. 이런 민담들에 대해 기존에 수행된 국문학이나 민속학적 연구를 고찰하였을 때, 상전을 속인 하인

3) Radin P (1972):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4) Radin P (1972):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igure",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pp195-211.

민담과 사회상의 연관성에 주목한 논문들이 우선 여럿 눈에 띄었다.⁵⁾ 이런 논문들은 상전을 속인 하인 민담이 신분과 지체에 따른 구분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난 조선 후기 민중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조선 후기에 뚜렷이 드러나는 신분제의 극심한 동요와 사회변화 현상 속에서 이러한 사기꾼 유형의 인물이 대거 등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⁶⁾ 실제로 이 시기에 상전 속이는 하인과 함께 ‘서울 사람 속이는 시골 사람’, ‘붕이 김선달’ 류의 많은 구전 민담에서부터 김인복, 이홍, 정수동 등 한문 단편 기록물까지 ‘속이는 인물 유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고, 탈춤에도 상전을 속이는 인물이 전형화되어 등장하였다.⁷⁾ 또한, 당대 사회는 노비 신분층이 상전이나 지배층에 항거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상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사회 분위기였고, 이것이 ‘상전 속인 하인’ 민담이 조선 중후기의 역사적 실제 상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 있다.⁸⁾ 실제로도 쇄미록(瑣尾錄) 등에 실린 기사들을 살펴보면 상전을 속이는 하인에게 일반적으로 당하며 분노를 참을 수밖에 없는 양반 또는 하인을 죽을 정도로 벌하는 양반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하인이 상전의 가족을 몰살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⁹⁾

1980년대 초부터는 국내에서 트릭스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며 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이 등장하는 민담을 ‘트릭스터’라는 측면에서 논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¹⁰⁾ 이 논문들은 사회적 배경에 더해 신화적 소인이 있을 것

5) 조동일 (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서울, pp220-224.

김대숙 (1994): “설화에 나타난 계층의식 연구”,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서울, p299.

김현선 (1990): “건달형 인물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 제8집, 경기대학교국어국문학회, 수원, pp97-157.

6) 김현선 (1990): 위의 책, pp97-157.

7) 신연우 (2003):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서울, pp109-128.

8) 신연우 (2003): 앞의 논문, pp109-128.

9) 신연우 (2003): 앞의 논문, pp109-128.

10) 정용선 (2002): “‘상전속이는 하인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연우 (2003): 앞의 논문, pp109-128.

나수호 (2011):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이라고 주장하며 민담 속의 신화소(mythologem)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통적인 트릭스터 민담의 구조가 조선시대 반상갈등 문제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듬어진 후 시대변화와 함께 변천되어 온 것이라고 논하였다. 나수호는 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이라는 인물을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와 비교하여 한국 트릭스터 역시 ‘경계성(liminality)’이라는 보편적인 트릭스터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기존 사회구조를 무너뜨리는 데에도 이바지했다고 주장하였다.¹¹⁾

융은 ‘인간의 정신(psyche)이란 의식(consciousness)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의식 너머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인간 정신작용의 보편적인 틀이자 원리인 원형(archetype)의 존재를 체험하였으며, 풍부한 확충을 통해 그 작용을 경험론적으로 입증하였다. 원형은 꿈이나 환상, 신화나 민담, 종교적인 의례와 같은 정신적인 유산들 속에 나타나는 상징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 꿈이나 신화, 민담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원형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자, 집단적 무의식에 접속을 시도함으로써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자기실현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에 나타난 트릭스터 상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고 확충 작업을 통해 국내와 다른 문화권의 트릭스터 이야기들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의 이해를 시도하고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적 의미를 논해보고자 한다.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상전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류의 민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민담이 우리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는 방학중, 정만서 일화가 많이 전승되는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록되었고, 북한에서는 평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록되었다.¹²⁾ 민담에 따라 포함된 삽화가 하나에서 여럿인 경우까지 다양하나 가장 흔한 것은 ‘주인을 골려주고 나중에는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재산을 차지하는 하인

11) 나수호 (2011): 앞의 논문.

12) 정용선 (2002): 앞의 논문.

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줄거리를 골자로 하는 민담들의 경북 지역의 채록은 대부분 1980년대에 채록된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에 담겨 있는 것들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시기적으로 더 앞선 1936년 평안북도에서 채록되어 한국구전설화(韓國口傳說話)에 기록된 자료인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을 대상 민담으로 정하였다.¹³⁾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넋날에 어드런 부재집에 하인 하나이 있었드랬는데 이 하인은 당창 친에 성화 멕이군했다.

 이번은 친이 과개보레 서울에 가게 됐는데 이 하인을 서울에다 버리구 오갔다 구 이 하인을 말 경매들리워 데불구 갔다. 하하 가다가 하인은 참밥¹⁵⁾ 먹자구 했다. 친은 “참밥 때레 아직으는 멀었는데 어드레 볼세 찬밥 먹자구 하네, 걸씨¹⁶⁾ 가 재” 구 했다. 하하 가다가 하인은 또 참밥 먹자구 했다. 친은 참밥 때가 아직으는 멀었는데 볼세 찬밥 먹자구 하네, 날래 가거나 하라구 과됐다. 그래서 가는데 하하 가다가 하인은 또 참밥 먹자구 했다. 친은 “야야 너는 어드레 참밥만 먹자구 그라네, 참밥 때가 아직으는 멀었넌데두” 했다. 그러느꺼니 하인은 “참밥을 오래 두면 띠가 돼서 그러무다. 띠가 되기전에 먹어야 해서 그러무다” 하구 말했다. 친은 이 말을 듣구 “야 티꺼운 소리 어드레 하네? 어드래서 밥이 띠레 되네? 그따 위 티꺼운 소리 말구 날래 가거나 하라” 구 과테멘 나무랬다.

 하하가다가 하인은 친 몰래 말공무니께루 가서 말공무니에 달아논 참밥을 친 것과 하냥¹⁷⁾ 다 먹구 밥그릇에 띠를 싸서 넣어두었다. 그리구 가다가 참밥 때가 되느꺼니 친이 이제는 참밥 먹자구 했다. 하인은 친 말을 듣구 말 공무니에 매달 아 논 참밥을 친 앞에 갯어다 뵈다. 친이 참밥 그릇을 열어보느꺼니 밥은 없구 띠레 가득 있어서 이거 어드런 노릇이가 했다. 그러느꺼니 하인은 “거 보시랴우요. 내레 아까부탄 참밥 오래 두문 띠레 된다구 안 할데까. 참밥을 오래 두어서 띠레 되구 말았수다레” 하구 말했다. 친은 할 수 없이 참밥두 먹딜 못하구 배를 곱멘

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14) 임석재 (1936):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1936년 12월 평안북도 용천 김승덕, 《한국구전설화》, 3권, 평민사, 서울, pp126-130.

15) 점심

16) 어서, 빨리

17) 함께

갔다. 하하 가다가 죽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친은 죽을 사오라구 했다. 하인은 가서 죽을 사개주구 오멘 손꾸락으루 죽을 뒤집멘 왔다. 친이 와 그러능가 물으니꺼니 “이 죽안에 내에 머리 니가 떠러데서 그걸 찾아 꺼בל라구 그러무다”구 했다. 친은 이 말을 듣구 “어드레 내레 그걸 먹간. 너나 먹어라” 하멘 죽을 하인에게 주었다. 친은 가다가 굴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하인과 굴을 사오라구 했다. 하인은 굴을 사개주구 오멘 또 손꾸락으루 굴을 뒤적뒤적하멘 왔다. 친이 와 그러능가 하느꺼니 “이 굴 아낙에 내 콧물이 떠러데서 그걸 꺼내레구 그러무다” 했다. 친은 이 말을 듣구 “에이, 콧물 떠러진 거 어드레 먹간, 네나 먹어라“ 하멘 굴을 내주었다.

이러구루 친은 아무것두 못먹구 굶구서리 갔다.

그렇 데렁 가다가 서울에 다 왔다. 다 와서는 친은 어드런 정승을 만나보갔다 하멘 말을 하인한테 마끼멘서 “야, 이 서울이란 데는 눈 감으문 코 베가는 데이느꺼니 그리 알구 말을 잘 건새하라우”하구 갔다. 하인은 예예 하구 대답하구서는 친이 안 보이네 되느꺼니 말을 팔구서 말 고삐만 손에 감아쥐구 코를 두 손으루 부테 쥐구 담말에 웅쿠리구 앉아 있었다. 친이 일을 다 보구 와서 말이 없는 걸 보구 하인과 “네레 말 어따 두구 그러구 있네?” 하구 물었다. 하인은 우덩 짹 짹 놀랜 데 하멘 “어 말 어드메 갔나? 친님이 서울이란 데는 눈감으문 코 베가는 데라구 해서 코 벨가봐서 코를 웅케쥐구 있었년대 어떤 놈이 말 고삐만 끊구 말을 채갔수다레”하구 말했다. 친은 이 말을 듣구 텅무해서¹⁸⁾ 이 놈을 이대루 데볼구 있다가는 큰 벤나갔다¹⁹⁾ 하구서리 시골²⁰⁾ 집으루 내리 보내기루 했다. 그리구 하인에 등장때기²¹⁾에다 펜지를 써서 집으루 내리가라구 했다.

하인은 그래서 집이루 내레 오는데 오다가 어떤 말에 왔다. 와보느꺼니 한 집에서 낸 하나이 아를 업구 디덜방아루 메주를 찌구 있었다. 하인은 글루루 가서 “아즈마니 아를 업구 방아찌기 힘들갔수다. 내레 아를 안구 메주를 우게 들이갔수다”하구 말하느꺼니 낸은 동와라구 하멘 아를 매끼구 방아를 찌었다. 하인은 아를 안구 메주를 우기구 있다가 메주레 다 찌어지느꺼니 메주를 푼말아 꺼내구 아를 방아학안에 집어 넣구 다라뛰었다. 그러느꺼니 낸은 방아를 디딘 발을 땀 수 두 없구 데런데런 소리만 하구 있었다.

18) 어치구니가 없어서

19) 큰 봉변당하겠다

20) 시골

21) 등허리

하인은 메주를 개지구 다라뒤서 하하 가다가 꿀당시를 만났다. 하인은 얼렁²²⁾ 메주루 말을 만들어 꿀당시한테 가서 “내레 꿀 사갔으니 님제 말과 내 말과 같은 가 꿀을 한 말 이 말에 부어보구레” 했다. 꿀당시는 꿀을 한 말 돼서 하인에 말에 부었다. 꿀이 메주에 써 드니꺼니 한 말이 되딜 안했다. 하인은 “님제 말이 적어서 난 못 사갔수다”하멘 기튼²³⁾ 꿀을 꿀당시에게 부어주구 갔다.

하하 가다가 산등새기²⁴⁾에 오느꺼니 중 하나이 꾸구리구 앉아 있었다. 와 그러구 있느냐구 물으니꺼니 배레 고파서 그런다구 했다. 하인은 메주덩이를 찌름 떼어주었다. 중이 먹어보니꺼니 맛이 여간만 맛있디 안했다. 조금 더 달라구 했다. 하인은 내 뒷잔등에 펜지레 메라구 쓰여 있능가 봐달라구 했다. 중이 하인에 등장때기에 쓰여있는 펜지를 낄구서 “펜지에 메라구 쓰여있는구 하니, ‘이 하인 때 문에 참밥두 못 먹구 배만 굶구 서울에 와서는 말두 톨어 먹구 또 머이머이 이놈에 하인까타나 될 일두 안 되구 성화만 멕었으니꺼니 내리가거던 당당에²⁵⁾ 직에 뿌리라’구 쓰여있다”구 말했다. 하인은 이 말을 듣구 “그 펜지를 다 디우구 ‘아무가이를 데불구 왔더니 이놈이 잘해주어서 과개두 잘되구 했으니꺼니 집에 가거던 막내 누이와 겔흔시키라’구 써주구레. 그러문 내 이 메주를 줄꺼이니꺼니”하구 말했다. 중은 메주를 더 얻어먹구파서 하인이 말한대루 써 주었다.

하인은 집에 가서 “친님은 불일이 있어서 내중에 오갸다멘 날더라 맨제 가라 하구 내 잔등에 펜지를 써주었이요. 자 일러보시구레” 하멘 뒷잔등을 내보였다. 하인에 잔등에 쓰여있는 펜지를 보구 이거 조화다²⁶⁾ 하멘서두 전에 펜지레 그렇게 쓰여 있으니꺼니 막내 누이와 겔흔을 시켰다.

그러한 메칠후 친이 돌아왔다. 친이 돌아오느꺼니 하인이 맨제 나가서 “친님 이자야 오십니꺼” 하구 인사했다. 벌서 죽은 줄 알았던 하인놈이 나와서 인사를 하느꺼니 친은 이거이 어드렇게 된 노릇이가 하멘 물으니꺼니 하인에 등에 썬 펜지 말대루 막내 누이와 혼세시키라 해서 혼세시켰다구 말했다. 친은 이 말을 듣구 중이²⁷⁾ 나서 이거 이대루 뒤다가는 안되갸다 하구서 하인을 죽두룩 두들게 패

22) 빨리

23) 남은

24) 산등성이

25) 곧바로

26) 이상하다

27) 화가 나서

구서 가족푸대에도 패구서 길가에 큰 나뭇가지에다 매달아놨다.

다음날 그 나무 아래로 쇠경 하나이 지나갔다. 하인은 쇠경이 지나가는 걸 보구 눈 뚫다 눈뚫다 하구 과됐다. 쇠경이 이 소리를 듣구 멀 그러네 하구 물었다. 하인은 “내레 눈이 멀었드랬는데 가족푸대에 들어가서 여기 매달렸더니 이제 눈이 떠서 그런다”구 말했다. 쇠경은 이말을 듣구 “그거 정말이까? 정말이라문 나두 가족푸대에 들어가서 매달레 보갔다”구 말했다. 하인은 “그래보시라고요. 날래 이 가족푸대에 들어가 있어부구레” 했다. 그러느꺼니 쇠경은 그렇가갔다고 하구서 하인을 가족푸대서 꺼내구 들어갔다. 하인은 쇠경을 가족푸대에 넣구 매달아 놓구서 다라났다.

메칠후에 친이 와보느꺼니 눈이 멀구 기운두 없게 돼서 이자는 다 죽게 됐다 하구 이놈을 강물에다 던지구 이 녀 잘 죽어라 하구 집에 돌아왔다.

그후 메칠후에 하인이 찾아와서 “친님 그간 안녕하시요”하구 절을 했다. 죽은 줄 알았던 하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느꺼니 친은 깜작 놀라서 “이거 님제 어드르케 살아왔네?”하구 물었다. 하인은 “친님이 강에 내던져서 강물속에 들어갔더니 농궁이 있던데 거기는 없는 거 없구 살기가 둥은 곳이 돼서 내레 색시를 데블구 가서 오래오래 살라구 색시를 데블루 왔수다”하구 말했다. 이 말을 듣구 친은 “강속에 그렇게 둥은 곳이 있능가? 그 둥은 곳에 나두 가서 살구픈데 나두 갈 수 있능가?” 하구 물었다. 하인은 “농궁에는 아무나 가서 사는 곳이 아니라서 친님은 갈 수레 없이요”하구 말했다. 그러느꺼니 친은 더 가구파서 “야야 너 나좀 가게 해달라우”하멘 사정했다. 그러느꺼니 하인은 “친님이 정 그렇게 말하느꺼니 고롬 가두룩 해봅시다레” 하구서는 친님과 노친네와 큰 아덜 큰메누리 작은 아덜 작은메누리 친집 인간마다 비짜루 하나씩 손에 들리우구 강가로 갔다. 그리구 친과 맨제 강물속에 뛰어들어가라구 했다. 친이 강에 뛰어들어가 죽게 되느꺼니 비짜루를 놔다. 비짜루는 물 우에 떠서 흔들흔들했다. 하인은 그걸 보구 노친네와 “데거 보시라고요. 친님이 노친네 날래 들어오라구 비짜루를 흔들구 있수다레. 날래 뛰어들어가시구레” 하구 말했다. 노친네는 그 말을 듣구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죽게 돼서 비짜루를 놔서 비짜루가 물우에 떠서 흔들흔들 하느꺼니 큰아들 보구 “날래 들어오랍니다. 어서 들어가시구레” 했다. 큰 아들은 이 말을 듣구 강물에 뛰어들어갔다. 비짜루가 또 물우에 떠서 흔들흔들 하느꺼니 큰메누리과 날래 들어가라구 했다. 이렇게 해서 친네집 인간이 모두다 강에 뛰어들어가 죽게됐는데

마감에 친네 막내누이, 이 하인과 결혼한 색시레 강에 뛰어들라구 하느꺼니 하인은 “야 강에 뛰어들어가문 죽어야. 죽기 싫구 살구푸문 이리 왜!”하구서 색시를 부테잡구 끌구 집이루 왔다.

이 하인은 친네집 인간을 모주리 다 강물에 빠져죽게 하구 그 집에 재산을 모주리 다 차지하구서 색시와 잘 살았다고 한다.

유화와 변이

1. ‘상전 속이는 하인’류 민담의 변이

정용선은 전국에 분포된 주인을 속이고 골려주는 하인에 대한 67편의 민담들을 조사하여 ‘상전 속이는 하인’류의 민담들로 명명하고 분류한 바 있다.²⁸⁾ 본 논문에서는 국내 민담의 유화와 변이를 정용선의 논문을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정용선은 이 민담 류의 삽화들을 1) 조롱담: 상전이 하인을 견마잡이로 한양으로 데려가는데 상전을 속여 음식과 술을 뺏어 먹고 말도 팔아버리는 삽화, 2) 혼인담: 상전이 하인의 속임을 견디다 못해 죽이려고 등에 편지를 써서 집에 내려 보냈는데 하인이 중간에 편지를 고쳐 써서 주인의 딸과 혼인하는 삽화, 3) 살주담: 상전이 뒤늦게 내려와 하인을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하인의 속임에 넘어가 딸만 빼고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삽화, 4) 보복담: 상전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이 하인을 죽여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는 삽화, 5) 기타: 하인이 아낙네와 꿀장수를 속여서 떡보리와 꿀을 훔치는 삽화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롱담, 혼인담, 살주담이 포함되어 있는 살주형 민담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본 논문의 대상 민담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²⁹⁾ 정용선에 따르면 총 67편 중 조롱형 민담이 15편, 혼인형 민담이 9편, 살주형 민담이 28편, 보복형 민담이 4편, 기타 민담이 11편이었다. 본 저자는 살주형 민담 28편 중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22편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대상 민담과 그 드라마 구조를 비교하고 핵심적인 모티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표 1). 거의 대부분의 민담의 변이

28) 정용선 (2002): 앞의 논문.

29) 정용선 (2002): 앞의 논문. 조롱형 민담: 조롱담, 혼인형 민담: 조롱담+혼인담, 살주형 민담: 조롱담+혼인담+살주담, 보복형 민담: 조롱담+혼인담+살주담+보복담.

표 1. '상전 속이'는 하인류 실주형 민담들의 모티프 비교³⁰⁾

제 목	수 록	이(하) 건마 지혜	보따리 잠이 자기	상전 꿩기	말 꿩기	땀 보리	땀 꿩기	부처 훈배	혼인 매달기	대신 매달기	웅궁
1. 파편이 하인의 사기행각-정평구일화	대개 ³¹⁾ 1-1, 513-522	0	1	0	0	1	0	0	1	1	1
2. 마부이야기	대개 1-2, 186-191	0	1	0	1	1	1	1	1	1	1
3. 상전 끌방머이는 하인	대개 1-2, 374-375	0	1	0	1	0	0	0	0	0	1
4. 파장이하인의 사기행각	대개 2-6, 311-316	0	1	0	1	1	1	1	1	0	0
5. 김부선 이야기	대개 4-1, 36-45	0	1	0	1	0	1	1	1	1	1
6. 논 김으연코 배 간다	대개 4-4, 886-891	0	1	0	1	1	1	1	1	1	1
7. 피망은 마동이	대개 4-4, 93-99	0	1	0	1	1	1	1	1	1	1
8. 마동이의 간계	대개 5-4, 99-106	0	1	0	1	1	1	1	1	1	1
9. 말양구리가 하인의 꾀	대개 5-7, 640-645	0	1	0	0	1	1	1	1	1	0
10. 방황중이와 떡보리	대개 7-6, 420-424	0	1	0	1	1	1	1	1	1	0
11. 상전을 끌러 막은 방학중	대개 7-9, 887-892	0	1	0	1	1	1	1	1	1	1
12. 상전을 꾸보인 하인 '떡거리'	대개 7-9, 1016-1021	0	1	0	1	0	1	0	1	1	1
13. 상전을 끌러준 방학중	대개 7-10, 41-43	0	1	0	1	0	1	0	0	1	0
14. 위기를 역전시킨 당거리	대개 7-10, 887-889	0	1	0	1	1	1	1	1	1	1
15. 또걸이에게 끌랑먹은 과거선비	대개 7-12, 196-203	0	1	0	1	1	1	1	1	1	1
16. 피망은 마동이	대개 7-17, 485-487	0	0	0	0	1	1	1	1	0	0
17. 김도함과 마동이	대개 8-5, 883-892	0	1	0	1	1	1	1	1	1	1
18.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³²⁾	한국전설화 ³³⁾ 126-130	0	1	0	1	1	1	1	1	1	1
19.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한국전설화 ³³⁾ 130-132	1	0	0	1	0	1	0	1	0	1
20.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한국전설화 ³³⁾ 133-135	1	0	1	0	0	1	0	1	0	1
21. 주인을 망하게 한 중	한국전설화 ³³⁾ 135-137	0	1	0	0	1	1	1	1	1	1
22. 상전을 망하게 하는 하인	한국전설화 ⁵⁾ 259-261	2	19	2	16	15	21	13	12	20	15

모티프 설명
 아이 지혜: 이야기 상전의 과제를 해결한다.
 건마장이: 상전의 건마장이로 서열에 간다.
 보따리 자기: 상전은 하인을 몰래 빼뜨려 죽이려다가 보따리를 찾다.
 상전 꿩기: 뱀이 똥 뒤기 응수에 더러운 것 빼졌다고 재가 막기, 수저 달구기 등의 방법으로 하인이 상전의 음수를 막는다.
 말방기: 주인의 말을 핑계로 말을 끌어내린다.
 떡거리: 상전은 하인을 죽이려는 내용을 등에 적거나 붙인다.
 또걸이: 하인은 아이 없고 떡보리 혹은 배중 짙은 아내네의 떡보리를 훔친다.
 풀 하인의 풀을 삼켜한다: 풀만 문혀는 사지는 않는다.
 편지 그자기: 스님을 만나 편지 내용을 고친다.
 부처, 톨배: 떡보리를 먹기 위해 부처나 톨배를 끈다고 알려줘 낭패를 보게 한다.
 혼인, 상전의 딸 또는 누이와 혼인한다.
 나무에 매달기: 상전은 하인을 죽이려고 나무에 매인다.
 대신 매달기: 하인은 자기가는 장사꾸이나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하여 대신 매달고 자신을 달아낸다.
 웅궁: 하인은 웅궁이 살기 좋다고 하며 아내만 제외하고 상전의 가족을 풀어 빼뜨려 죽인다.

30) 정용선 (2002): “상전속이는 하인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선이 삼주형 민담의 주요 모티프로 정리해놓은 모티프 14개를 이용하여, 삼주형 민담 22편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대상 민담과 그 드라마 구조를 비교하고 핵심적인 모티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32) 본 논문의 대상 민담.

33) 임석재 (1936):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서울.

들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는 견마잡이로 하인이 주인을 동행해서 한양으로 떠남(19편), 상전을 속여서 굶기거나 말을 팔아버림(20편), 등편지를 써서 죽이려 하나 편지를 고쳐서 혼인함(20편),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 하나 대신 남을 매달고 달아남(16편), 용궁 구경을 시켜준다며 주인 식구를 모두 죽이고 재산과 딸을 차지함(19편)이었다. 요약하여 보자면 본 민담의 핵심적인 모티프는 속임수를 써서 주인에게 속한 음식, 재산, 여자를 모두 가로챈다는 것이며, 주인의 처단하려는 시도에도 하인은 보기 좋게 달아날뿐더러 주인을 망하게 하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2. 국내의 유화

우리나라의 신화와 민담에서 트릭스터 유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속임수를 이용해 왕위에 오르는 건국 신화들이나 속임수를 통해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을 이기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주몽 신화에 따르면 주몽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화들을 이야기한다. 주몽은 일찍이 준마를 알아보고 그 말의 혀뿌리에 비늘을 꽂아 여위게 하여 금와왕으로부터 그 말을 얻는다. 또한 주몽은 신하 부분노로 하여 금 비류국의 고각(鼓角)을 몰래 가져오게 한 뒤 색을 검게 칠하여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궁실을 썩은 나무로 지어 오래 묵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도읍의 선후를 따지는 비류국왕의 입을 막는다.³⁴⁾

석탈해 신화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석탈해는 남해왕 시절 배 안의 큰 귀짝에서 여러 보물과 노비와 함께 발견된 후 자신이 용성국의 왕비에게서 알로 태어났으나 버림받아 이곳에 왔다고 밝히며 성안에 살 만한 곳을 찾은 뒤, 호공(瓠公)의 집에 갔다. 탈해는 속임수를 써서 호공 집 곁에 몰래 숫돌과 숯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호공 집에 가서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라 우겼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여 “나는 본래 대장장이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자가 차지한 것이니, 그 땅을 파보면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숫돌과 숯이 있어서, 탈해가 호공의 집을 차지하였다. 이에 남해왕이 탈해의 슬기로운 알고, 만사위로 삼았다.³⁵⁾ 이처럼 석탈해 신화나 동명왕 신화와

34) 이승철 외 (2012): “주몽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35) 이승철 외 (2012): “석탈해신화”, 앞의 책,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국 신화에서 탈해나 주몽 모두 속임수를 써서 상대와 겨뤄 자신의 위치에 오르며, 여기서 속임수는 왕이 될 존재들의 지혜와 슬기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의 우월한 인식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신화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무가 <세경본풀이>에서도 주인공 자청비는 상대를 속임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보여준다. 게으른 하인 정수남은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고 돌아와 야단을 맞자 문도령을 보았다는 거짓말로 주인집 딸 자청비를 속여 산속으로 데려간다. 자청비는 자신을 범하려는 정수남에게 거짓으로 동의를 한 후 밤을 함께 보낼 움막을 지으라 시키고 밤새 방해한다. 화가 난 정수남에게 이를 잡아준다고 속여 깜빡 잠이 든 정수남의 귓구멍에 나뭇가지를 찢러넣어 죽이고 위기를 모면한다. 자청비 역시 트릭스터 인물인 정수남을 트릭스터적 특성인 속임수를 써서 대적한다.³⁶⁾

우리나라 민담에서는 토끼나 메추리, 호랑이가 트릭스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토끼와 메추리는 약한 동물로서 강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이나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고 즉흥적인 꾀를 이용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토끼전>에서 토끼는 용왕과 자라를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고, 동시에 용왕의 잔치음식을 먹고 자라의 부인과 동침까지 하는 등 자기의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존재이다.³⁷⁾ <호랑이와 꽃감>, <해님 달님> 등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속이고 위협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교활하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꽃감이 자기 동료를 죽인 무서운 소도둑이라 생각하고 줄행랑을 치거나 썩은 동아줄을 잡고 떨어져 죽는 등 어리석은 존재이다.³⁸⁾

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신화와 민담에서 '속임수로 뺏고 상대를 골탕 먹이는' 트릭스터의 원형상들이 본 논문의 대상 민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외의 유화

먼저 해외의 신화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대상 민담의 핵심적인 모티프들을

- 36) 신동훈 (2004):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서울, pp221-250.
- 37) 나수호 (2002):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 38) 김기호 (2003):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서울. pp221-248.

담고 있는 유화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거짓말쟁이이며 속이고 빼앗아가는 신들의 이야기이다.

북미 원주민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동형(神人同形)의 사기꾼인 나나보조(Nanabozho)나 왁준카가(Wakdjunkaga)는 인간에게 불과 같은 유익물을 가져다주는 문화영웅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들을 속여 죽이고 음식과 성을 탈취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존재로 등장한다. 왁준카가는 자두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속여서 어머니들을 내보내고 아이들을 모두 잡아먹고는 스텝크에게 굴을 파도록 만들고 어머니들을 그리로 속여 유인해서 어머니들마저 잡아먹는다.³⁹⁾ 코요테는 북미 원주민 설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동물로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교활하지만 한편 바보스럽기도 한 존재이다.⁴⁰⁾ 코요테는 미국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의 우주창조신화에서는 창조주의 활동을 망치고 악의 요소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겨울과 죽음이 생기게 하지만,⁴¹⁾ 나바호족의 세계창조신화에서는 사람들이 갈대의 대롱을 통해 아래 세계에서 홍수를 피해 위로 올라오도록 해서 지금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존재로 십자로의 안내자인 헤르메스와 같은 트릭스터의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⁴²⁾

아프리카의 트릭스터 이야기들에서는 아칸 아산티(Akan-Ashanti) 지역의 거미 트릭스터 신인 아난시(Anase, Anansi)와 같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신화적 사기꾼들이 널리 퍼져있다. 아난시는 하늘의 신인 그의 아버지를 위해 행동하는 신으로,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는 책임을 가지며 비를 내려 불을 멈추는 역할을 하고 인류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거미 혹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다. 그러나 그가 유명한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아난시가 사람의 턱을 빼앗는 새를 죽여 턱을 찾아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인도의 크리슈나 신은 힌두교 비슈누 신의 여덟 번째 화신으로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진 인물로 <기타(Gita)>에서 완벽한 동맹자이자 목적에 충실한 인물로 나타나지만 때로 장난기 넘치고 비도덕적이며 기만적이기도 하

39) Radin P (1972): Ibid., pp29-31.

40) 이런 트릭스터 민담들의 주인공은 흔히 동물로서 등장하는데 북미 원주민의 코요테, 토끼, 거미, 까마귀와, 아프리카의 토끼, 다람쥐, 거미(Anansi),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작은 사슴(Kantijil)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1) Chevalier J, Gheerbrant A (1997):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239.

42) Chevalier J, Gheerbrant A (1997): Ibid., p666.

다. 어린 시절의 크리슈나는 버터와 우유를 아주 좋아해 때로는 우유를 훔치는 것으로 묘사되며, 숲속의 장소에서 피리를 불어 목동의 아내나 딸인 고삐들을 유혹해 밤새 빙빙 도는 열정적인 춤을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³⁾

유럽의 경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형제 도둑인 케르코페스(Cercopes)는 나그네의 짐을 뺏고 죽이는 불한당들이다. 그들은 길가에 잠들어 쉬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공격했다가 도리어 그의 장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들의 우스갯소리에 즐거워진 헤라클레스는 그들을 놓아주게 된다.⁴⁴⁾ 케레니(Kerenyi)는 프로메테우스,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같은 고대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북유럽의 로키(Loki)를 사기꾼 신으로 정의하고 비교하였다.⁴⁵⁾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동물의 뼈를 비계로 감싸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에게 고기와 내장을 가지게 한다. 화가 난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아가자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불을 훔쳐 와 인간들에게 주었다가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다. 즉, 코카서스 산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 의해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절대 풀려날 수 없을 거라는 제우스의 말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화살로 쏘아 떨어뜨리고 그는 풀려난다. 헤르메스는 도둑들의 신이기도 한데, 아카디아(Arcadia)의 킬레네(Cyllene) 산의 동굴 속에서 태어난 그는 신생아를 묶는 봉대를 스스로 풀고 그의 형인 아폴로의 소 떼를 훔친 뒤 소의 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아 흔적도 없이 멀리 데려가 감춘 이야기로 유명하다. 로키는 북유럽 신화의 말쑥꾸러기 신으로 그의 이중적인 특성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는 신들의 동료로 함께 거인들과 대적해 싸우거나 난쟁이들을 시켜 신들을 위한 주술적 물건들을 만들어 오기도 하지만, 토르의 아내 시프의 아름다운 금발을 자르기도 하고, 발드르를 시기하여 소경인 호드르를 이용해 발드르를 죽이고 자랑스러워하며, 신들의 아내를 차지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존재이다. 로키는 토르에 의해 붙잡히고 신들은 그를 바위에 쇠사슬로 묶은 뒤 위에 독뱀을 걸어두지만, 예언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라그나뢰크)의 순간에 그는 쇠사슬에서 풀려나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43) 두산백과 두피디아: “크리슈나 [Krishna/Krsnal]”,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44) Grimal P (1991): *Dictionary of Classical Mythology*, Penguin Books, London, p92.

45) Radin P (1972): *Ibid.*, pp180-191.

고 신들에 대해 싸우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다.⁴⁶⁾

해외의 많은 민담에서도 유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톰슨(S. Thompson)의 〈Motif-index of Folk-literature〉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에서 거짓말이나 말장난으로 주인의 음식을 뺏아 먹거나 재산을 빼앗는 민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전 속이는 하인’ 류 민담의 조롱담과 유사하였다.⁴⁷⁾ 하인, 도둑, 사위, 트릭스터 등의 인물이 주인이나 장인을 속여 빼앗아가는 이야기들로 대체로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골려준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아잔테족의 트릭스터인 투레는 음식으로 채취한 흰개미를 다 잃은 후 그의 아내들이 바위에 말리고 있는 흰개미를 먹기 위해 은다리 나무의 수액을 뿌려 피처럼 붉게 변하게 한 뒤에 “당신의 형제들이 여기서 싸우다가 창에 찔려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 그의 아내 중 난작베는 울부짖으며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고 투레는 흰개미를 빼앗을 수 있게 된다.⁴⁸⁾

일본의 ‘타와라 야쿠시(가마니 약사)’ 이야기는 본 민담과 거의 흡사하다.⁴⁹⁾ 어느 주인과 게으른 하인이 있었다. 어느 날 하인은 매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은 하인에게 매의 집을 찡겨 오라고 한다. 하인은 나무에 오르더니 집이 불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믿은 주인은 타국으로 도망을 친다. 하인은 주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님을 자기 아내로 만든다. 뒤늦게 속은 걸 알게 된 주인은 하인을 죽이려고 사람을 시켜 하인을 가마니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리게 한다. 하인은 가마니를 옮기는 사람에게 근처에 금을 묻었다고 거짓말하여 운반꾼은 가마니를 두고 가버린다. 눈이 좋지 않은 어부(혹은 장님)가 지나는데 하인은 가마니에 들어간 것이 눈의 보양을 위해 서라고 거짓말해서 어부를 대신 들어가게 하고 도망친다. 하인에게 속은 걸 알게 된 운반꾼은 돌아와 어부가 든 가마니를 바다에 던진다. 하인은 어부의 집에

46) Eliade M, 최종성, 김재현(역) (2005): 《세계종교사상사》, 2권, 이학사, 서울, pp229-236.

47) Thompson S (1955-1958): *S. Thompson.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 a classification of narrative elements in folktales, ballads, myths, fables, medieval romances, exempla, fabliaux, jest-books, and local legends*,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48) 나수호 (2011): 앞의 논문, pp81-82. 한편 투레의 다른 아내 낭바푸도는 투레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흰개미를 모두 키질해서 집으로 들고 간다.

49) 關敬吾著, 小澤俊夫補訂 (2013): 《日本昔話の型》, 三角商事, 福岡, pp54-56.

가서 생선을 챙기고 주인에게 가서 바다에서 낚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주인이 자신도 생선을 낚고 싶다고 하자 하인은 주인을 가마니에 넣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주인의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님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한다.

중국의 영리한 사기꾼 이야기의 주인공인 쉬 원창(Hsu Wen-ch'ang, 1521-1593)은 역사적 인물이나 그 이전의 사기꾼 이야기들이 쉬 원창의 이야기로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⁵⁰⁾ 그는 타인을 놀리고 당황케 하거나 조롱하는 데, 그 목적이 내기에서 상대를 골려주거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갚아주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재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는 남의 재화를 뺏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여 여인네들의 알몸을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담의 '애뜩이'⁵¹⁾처럼 속임수를 위해 거짓 이름을 쓰기도 한다.

몽골의 민담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는 몽골의 엄청난 거짓말쟁이로 유명한 척척생계의 이야기가 나온다.⁵²⁾ 그는 속임수와 말장난으로 영주나 관리들을 꼼짝 못 하게 하고 통쾌하게 민중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존재이다. '서낭나무에 묶여 고질병을 고치다'에서 생계는 영주의 둘째 아내와 사랑을 나누다가 영주의 노여움을 사서 서낭나무에 묶여서 불에 타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바 공 나리에게 "고질병이 나왔다."라는 노래를 불러, 바 공은 자신의 엉덩이와 등허리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생계 대신 자루에 들어가 매달렸다가 타죽게 된다. 멀쩡히 살아 돌아온 생계는 옴라대왕의 분부라며 "모든 사람은 아내가 하나만 있도록 운명 지어졌는데 달라이 왕이 겹으로 아내를 거느린 것은 너무도 큰 죄다."라고 옴라대왕이 장부에 적고 "남아도는 아내들 가운데 하나를 취하라!"고 하였다며 다음날 둘째 아내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며 떠나게 된다. 속임수를 써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로 영주를 꼼짝 못 하게 하고 여인을 얻어 떠나는 생계는 본 민담의 하인과 많이 닮아있다.

북미의 코요테와 유사하게 유럽에서 유행한 여우 르나르의 이야기(Roman de Renart)는 12-13세기에 필사본으로 정리된 불문학의 대표작이다. 주인공

50) Faurot JL (1977): "Hsu Wen-ch'ang: an Archetypal Clever Rascal in Chinese Popular Culture", *Asian Folklore Studies*, 36(2), pp65-74.

51) 하인은 자신을 이제부터 '애뜩이'라 불러달라고 하고는 주모에게 수저를 달귀달라고 한 후 주인이 달군 수저 때문에 "아! 뜨거!"라고 하면 그때 재빨리 "애뜩이 부르셨습니까?" 하고 얼른 주인의 밥상을 받아서 넬름 먹어버린다.

52) 유원수 편 (2014): 《세계민담전집》, 3권 몽골편, 황금가지, 서울, pp140-149.

여우 르나르는 독일어 reinhart (매우 약삭빠르다)에서 왔다. 르나르는 늑대 이장그렝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닭들을 함부로 잡아먹는 등 동물 왕국에서 온 갓 말썽을 피우고 이리저리 빠져나간다. 결국 왕궁으로 불려 와서 이장그렝과 결투를 벌여 죽을 뻔 하였으나 르나르의 아내가 간청하여 살아나고 회심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지내는 듯하지만 결국 닭을 잡아먹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나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⁵³⁾ 독일의 14세기 민담으로 구전되는 틸 오일렌슈피겔 (Till Eulenspiegel)은 그 시대에 관하여 짓궂은 농담을 즐기는 사기꾼이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능공들에서부터 귀족과 교황까지 속여먹는 인물로 피카레스크 문학(건달 문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이라는 교향시에서 틸은 시골 동네 방방곡곡을 누비며, 말을 타고 시장을 통과하면서 상품과 물건을 쓰러뜨리고 근엄한 튜튼 성직자에게 농담을 슬쩍 던지고 소녀들을 유혹하고 뒤쫓으며 심각한 학자들을 조롱한다. 교향시의 끝에서 그는 정부 기관에 붙잡혀서 불경죄로 교수형을 당하고 음악은 정적이 흐르지만, 다시 시작 부분의 주제가 연주되면서 틸 같은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시하며 음악적 농담으로 끝을 맺는다.

아프리카의 트릭스터 이야기들에서는 아난시 등과 같이 신화적 사기꾼들이 널리 퍼져있지만, 한편 나이지리아의 대도시에서는 사기꾼 인간의 사기행각에 대한 현대 민담이 발견되는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대도시 생존을 위해 이러한 민담으로 대비해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⁵⁴⁾ 미국 흑인들의 민담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는데 16-18세기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트릭스터 민담이 미국에 도달하면서 신화적 사기꾼의 형태가 약화되고, 브레어 래빗(Brer Rabbit)이나 벅스 버니(Bugs Bunny)와 같이 영악해진 짐승의 모습으로 자기주장과 위태로운 저항의 상징적 인물상이 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어두운 하위문화 속에 널리 통용되는 사기꾼과 생존의 명수들에 관한 이야기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해방된 미국 흑인의 소수민족 문학 역시 본질적으로 사기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신화와 민담의 유희들을 살펴보았을 때, 속여서 음식을 빼앗아 먹거나 재산을 빼거나 여자를 가로채는 것, 즉 도덕적인 성찰 없이 속임수와 기만을

53) Renart와 같은 여우 이야기로 독일어로 괴테에 의해 쓰여진 Reineke Fuchs가 있다.

54) Rankle K et al. (2010): Ibid., pp914-924.

통해 자신의 식욕과 성욕 등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이라 할 수 있으며 원형적인 신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민담도 주인을 속여 음식과 말을 빼앗고 딸이나 누이를 가로채는 트릭스터 원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사기꾼이 대체로 처벌받거나 교화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이다.

그러나 트릭스터 신화에서 발견되는 이중성이 본 민담에서는 한 인물 안에서 공존하는 형태로 발견되지 않는다. 트릭스터 신들은 교활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지만 인간에 유익함을 가져오는 면모도 보이는 '신화적 사기꾼' 혹은 '문화영웅적 사기꾼'이다. 달리 말해 옳이 말한 것처럼 초인간적이기도 하인간적이기도 한 존재이다. 이에 비해 본 민담에서는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의식의 일방성이 강화되면서 집단적 무의식으로 가라앉은 집단적 그림자 측면들이 사회적 영웅과 대비되는 반사회적이며 악마적인 측면을 가진 트릭스터 인물의 모습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본 민담은 중국의 쉬 원창과 몽골의 척척세계, 프랑스의 여우 르나르, 독일의 텔 오일렌슈피겔, 미국의 브레어 래빗, 벅스 버니 등 '교활한 사기꾼'의 이야기 쪽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답답한 현실을 흔들고 즐거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면에 어리석게 속고 당하는 트릭스터의 측면은 주인이나 아나, 꿀장수, 소경 등 다른 인물들로 인격화되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해석

1. 부잣집 주인은 과갓길에 하인을 한양에 버리고 오려고 한다.

1) 길 떠나기

이 민담의 도입부의 주 등장인물은 부잣집 주인과 하인 두 사람으로, 주인이 한양으로 과갓길에 오르면서 이 둘의 대립이 전개된다.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하는 주제는 많은 신화와 민담의 도입부에서 만나게 되는 모티프이다.⁵⁵⁾ 길을

55) 꿈에 등장하는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공간이 바뀌는' 등의 상황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에게 새로운 측면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제부터 의식은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떠나는 것은 기존의 상태에서의 변화 모색, 새로운 방향으로의 탐색과 출발, 변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을 떠나는 것을 통해 주인과 하인은 일대일로 서로를 대면하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길 떠남의 방향이 중심을 상징하는 나라님이 사시는 한양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때 주인과 하인의 대립이 목적을 가진 중요한 사건임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2) 주 인

주인이 재상이라고 되어 있는 민담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과거를 보려 한양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주인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부잣집 양반이라고 볼 수 있다. 양반은 조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합리적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집단적 의식의 태도를 대표한다. 즉, 양반으로 상징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선한 의지에 대한 기대와 훈련을 강조하는 태도로 인간의 동물성에 대한 정신성의 우위를 낙관하는 측면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파우스트의 출발점인 인간 의식과 지성의 팽창적 태도와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벼슬이란 나라의 통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사회의 지배적인 집단적 의식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본 민담의 변이를 살펴보면 번번이 벼슬을 얻지 못해서 뇌물을 주고라도 벼슬을 사려는 주인의 행동이나 벼슬을 얻으러 올라가는 다른 양반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묘사되는 등, 벼슬은 그 역할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집단 내의 지위와 권력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민담의 상황에서는 합리적 지성을 강조하는 집단적 의식이 집단을 단합시키고 이끌어갈 힘을 잃고 경화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즉, 그러한 경화되고 형식화된 집단적 의식의 인격화가 늙은 부잣집 주인이며, 벼슬을 얻으려는 주인의 태도의 이면에는 집단 내에서의 체면을 강조하는 태도인 페르조나와 동일시를 하는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3) 하 인

하인은 남의 집에 매여 그 집의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인은 주인과 반대에 위치하는 지위가 낮은 존재로 무시와 천대를 받는다. 따라서 하인은 지배적인 집단적 의식의 측면에서 무시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요소나 태도, 개인의 경우에는

주 기능에 대립되는 열등 기능을 대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인은 주인으로 표현되는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벼슬을 탐내는 주인의 태도가 세속적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는 출세욕 권세욕이라고 할 때 하인은 그에 대항하는 치열한 무의식적 반발로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분열되어 존재하는 두 태도를 보여준다.

부자집의 하인에 대해서는 본 민담에서는 하인이 주인을 애먹여서 한양에 버리고 오려고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이에서는 하인이 방정맞고 까불고 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 즉, 주인 양반의 입장에서는 하인의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거북하며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⁵⁶⁾ 그것은 하인이 유교적 인습적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체면보다는 본능적 욕구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참을 먹는 에피소드에서 주인이 어떤 시간, 규칙, 참을성과 같은 문명을 따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인은 전적으로 배고픔이라는 몸의 욕구에 충실하며 충동에 따라 행동을 한다. 따라서 하인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적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로 주인의 적수이며, 주인으로 상징되는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변이를 살펴보면 하인은 종종 하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인물인 막둥이로 나온다.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기존 질서 내의 권위자보다 더 지혜롭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티브는 민담에서 흔히 발견된다.⁵⁷⁾ 주인을 혼내주고 몰아내는 하인의 이야기는 늙은 왕을 대체하는 젊은 영웅의 이야기와도 같다. 젊은 영웅의 상징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더는 리비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집단적 의식의 교체를 가져오는 새로운 집단적 의식의 가능성'으로, 어린이 원형에 담긴 의미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한 가능성은 지금까지 의식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새로우며 또한 리비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젊거나 어린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만큼 의식에는 낯설고 열등하게 느껴지는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 기능과 그림자 측면으

56) 변이 중에서 주인이 소작인의 예쁜 아내를 탐하는 변이에서는 소작인의 어린 아들이 주인에 대적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어린 아들을 죽이려 한양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것 역시 어린 아들이 주인의 억지 내기를 맞받아쳐 골탕을 먹이고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57) 가장 나이 어린 하인이나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의 재치로 양반의 불합리한 요구를 일거에 물리치는 민담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하게 발견된다.

로 우선 경험된다. 따라서 새로운 의식의 가능성은 주로 어리고, 약하고, 어리석은 측면, 즉 하인이나 바보와 같은 열등한 인물로 등장한다.⁵⁸⁾

4) 하인을 버리려는 주인

따라서 본 민담의 도입부에 제기되고 있는 심리학적 문제 상황은 인간의 중대한 문제인 ‘이중적 본성’의 대면과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융은 인간은 전적으로 동물인 상태를 중단하고 인간이 됨으로써 이러한 곤경에 빠졌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은 아직 동물이지만 역시 의식적이며 영적이기도 한 존재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양립할 수 없는 힘들 간의 충돌 속에서 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⁵⁹⁾ 따라서, 인간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측면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 사이의, 혹은 무의식과 의식, 그림자와 자아 사이의 대립이라는 인간 실존의 문제가 본 민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담 속의 주인과 하인은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상징하며 그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게 되는 두 인물로, 하나의 이중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길가메쉬와 엔키두,⁶⁰⁾ 돈키호테와 산초 판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텔레스 등 ‘길떠나는 두 길동무’는 흔히 등장하는 모티프로서 자아의식과 그 그림자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때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처럼 형제나 쌍둥이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인이 하인을 처리하려는 방식은 하인을 한양에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학적 상황으로 이해해본다면, 이것은 자아가 그림자를 처리하려는 방식, 즉, 무의식으로부터 보상적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요소

58) 열등하고 기존 질서에 파괴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중적인 성격은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와 닮아있다. 메르쿠리우스의 색깔이 초록색인 것은 죽음의 시간인 겨울이 가고 새로 돌아오는 초록의 식물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재생의 측면을 메르쿠리우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9) Jung CG (1984): *Dream Analysis I: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28-1930*, Routledge, Abingdon-on-Thames, p368. 융은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동물성과 정신성의 갈등을 내적인 상징의 덕분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차원에서 재편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십자가와 초승달과 같은 종교적 상징들이 반복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핵을 형성해왔다고 하였다.

60) 길가메쉬는 강력한 우르크의 왕으로 백성들이 그의 압제에 불만을 터트리자 천신과 모신은 길가메쉬의 힘을 낮추기 위해 엔키두라는 힘센 야만인을 만든다. 둘의 싸움에서 길가메쉬가 이기자 둘은 친구가 되고 삼나무 숲의 괴물 파수꾼 흠바바를 정벌하는 모험을 함께 떠난다.

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의식에서 분리해버리는 방식이다.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슬쩍 떼어내어 안 보이는 먼 곳으로 치워버리는 것, 즉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부정(denial)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나아가 그림자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일 뿐'이라고 투사(projection)함으로써 그림자 문제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한편, 주인이 굳이 한양까지 가서 하인을 버리려는 것은 한양이 사람 많고 복잡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하인이 길을 잃고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을 노린 것이다. 많은 사람 속에서 길을 잃도록 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집단적 관점들의 영향 아래 트릭스터적인 요소, 즉 새롭고 개성적인 측면이 그 신선한 에너지를 잃고 집단화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성을 박탈하고 관습적 평균적 상식적인 것에 따르도록 페르조나화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집단의 의견에 따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스스로 짊어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며 그 편리성과 의존성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그것은 하인이 한양에 사는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식(nothing but attitude)의 축소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성과 자아의 책임을 경감시켜 보다 쉽게 외면하게 한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 "그건 그저 무언에 불과해" "다들 그렇지 뭐. 특별할 건 없어"하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며 지금까지의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방식들은 신경증 환자들이 흔히 자신의 그림자를 다루는 방식들과도 일치하는데, 본 민담은 그림자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투사하며 집단적인 태도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그림자와 트릭스터에 대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하인은 속임수로 주인의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말을 팔아먹는다.

1) 주인의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하인

주인을 속여서 음식을 뺏어 먹고 주인의 말(言)을 핑계로 말(馬)을 팔아먹는 등 하인은 주인의 것을 모두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차린다. 다른 변이에서는 주인이 참다못해 물가에서 자다가 실수로 건너찬 척하며 하인을 물에 빠뜨리려 하나 오히려 자신의 노갯돈과 짐을 빠뜨리게까지 된다. 주인은 자신이 무시

하던 하인에게 무력하게 음식과 말, 돈을 모두 빼앗기는 것이다.⁶¹⁾ 이것은 앞서 살펴본 전 세계의 신화와 민담 속에 등장하는 많은 트릭스터상의 모습이 그대로 본 민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사기꾼 원형이 우리 민족의 정신에도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 내면에도 이처럼 몰염치하고 교활한 사기꾼 같은 면모가 실재함을 알려준다.⁶²⁾ 트릭스터 신화와 민담들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점은 트릭스터들이 오직 자기 욕구에만 골몰하며 교활한 거짓말로 유혹하고 기만하여 본능을 채우는 부도덕한 존재로 상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심대한 피해와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다.⁶³⁾ 그것은 의식적인 성찰이나 절제 없는 가장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인간의 측면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자연생태계에서도 동물들이 상대를 속여서 먹이를 얻거나 교미를 하는 등 속임수가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한 방식으로 무력적인 방법 대신 선택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교활함이 조선 후기 종들이나 미국 흑인 노예와 같은 척박한 삶의 상황에서 하층에 속한 사람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을 이용해서 상대를 속이거나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자기 삶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집단적 규범에 순종하고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저항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본 민담에서도 하인의 즉흥적인 꾀와 교활함, 그에 꿈쩍 못하고 당하는 주인의 모습은 듣는 이에게 “고놈 참 대단하다!”하고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하인을 응원하게 만든다. 하인은 ‘주인과 하인’이라는 페르조나를 무시하고 자유로이 행동함으로써 주인의 것을 빼앗는데, 청중들은 하인의 그런 행동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규범과 억압을 깨는 해방감과 자유를 느낀다. 즉, 기존의 집단적

61) 민담의 변이를 살펴보면 참밥, 죽, 굴, 술, 저녁 밥상 등 주인이 먹을 음식을 주인이 어찌지 못하게 속여서 빼앗아 먹는 장면들이 해학적으로 많이 나온다. 가장 많이 뺏어 먹은 음식은 술과 죽이고, 주로 콧물이나 이(서캐)가 들어갔다고 주장해서 주인이 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22편의 변이 중에서 술이 6편, 죽이 4편이었고, 코가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가 11편, 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가 6편이었다.

62) 그러나 이 내면의 사기꾼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있으며 얼마나 몸서리치게 내 자신 속의 실체로서 깨닫고 두려워하는가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63) Rankle K et al. (2010): Ibid., pp914-924. 민담의 변이를 살펴보면 주인이 자신의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하인을 챙겨주지 않자 하인이 제 살길을 찾으려 그렇게 했다는 식의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이도 하인은 제 먹을 것만을 챙긴다.

의식의 틀인 페르조나를 흔들고 파괴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반면에 주인은 사회적 관습과 도덕에 기초한 페르조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인에게 속수무책이다. 하인처럼 그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즉, 하인은 집단적 의식의 가치관과 논리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집단적 의식을 약화시키고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집단적 의식이 낡아 더는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집단적 의식으로의 갱신(renewal)이 필요하게 되며 그런 현상은 늘 반복되어왔다. 이때 기존의 집단적 의식의 틀을 흔들고 깨는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창조할 수 있는 작용이 일어나며,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트릭스터 원형의 작용,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리비도를 누가 가질 것인가?

음식은 우리가 생명과 힘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자아의식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 즉 리비도라고 할 수 있다. 말은 본능적 요소이자 동물적 요소이며, 인간의 하부에 있는 것으로서 충동처럼 사람을 실어나르는 의식성이 부족한 정신을 상징한다.⁶⁴⁾ 용은 나르는 동물로서 말은 죽음과 마술과 관여되고 사자(死者)의 안내자로 여겨지는 등 모성 원형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는데, 어머니로 상징되는 근원적 삶에서 특히 동물적 신체적 삶에 해당하는 것이 말로 상징된다고 하였다.⁶⁵⁾ 한편 말은 하늘(천마), 건괘(乾卦), 태양, 양(陽), 왕권 등의 상징과 관여되는 남성적인 동물로서 남근의 생산성, 활동성, 추진력 등 리비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⁶⁶⁾ 돈 역시 자아의식의 가용한 에너지원으로서의 리비도를 상징한다. 즉, 하인이 주인의 것을 빼는 이야기는 정신의 두 대극적 요소들 사이의 리비도 쟁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신의 한 측면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은 낙차를 가져오며 자연스레 그에 대한 보상적인 흐름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고 마침내 낙차의 심화는 대극의 반전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음양의 순환'이라는 우주적 원리가 인간 정신

6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용 기본저작집 제1권, "꿈분석의 실용성",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p147.

6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앞의 책, p147.

66)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권, 동아출판사, 서울, pp258-263.

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나친 정신적 태도의 옹호는 본능적 태도의 우위를 이끌게 된다. 그것이 본 민담에 나타난 주인에 대한 하인의 우위가 초래되는 심리학적 의미이며, 조선 시대의 집단적 의식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것을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자아의식이 그림자에게 리비도를 빼앗기는, 즉 의식으로 흐르던 리비도가 이제는 무의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페르조나와의 동일시 속에 그림자를 무시하고 배척하려는 태도로 해리된 삶을 지속하는 신경증적인 상황에서 자아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치 노화된 것 같은 상태로 변해가게 되는데, 하인에게 어찌지 못하고 점차 모든 음식을 빼앗기고 배를 곯게 되는 주인의 모습은 이런 상태에 놓인 자아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림자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며 리비도를 장악하게 된다. 신경증적인 상황에서 환자는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초연한 듯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엉뚱하게도 내면의 그림자는 자아를 빙의시키고 자신을 실현한다.⁶⁷⁾ 그림자가 자아의식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식욕과 관련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페르조나와 동일시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가장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런 자아가 가장 무의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의 본능적인 영역들이며 그림자가 제일 먼저 공격해오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3) 하인에게 뺏기는 주인

하인의 속임수에 속고도 주인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양반 체면에 모른 척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하인이 주인에게서 연달아 음식과 술 등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체면 때문에 솔직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드러내고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숨김없이 하인에게 화를 내고 꾸짖지 못하고 속으로 하인을 죽이고 싶다는 분노를 키우게 된다. 이는 페르조나와 동일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타인을 볼 때 느끼는 질투와 분노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본능과 감정을 ‘살고

67) 누구보다 점잖고 예의와 경유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꿈에서 늘 양아치와 대결을 벌이고 양아치를 증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양아치와 다름없이 행동해버릴 때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실패한 통제력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더욱더 충동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림자의 상태에서만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만날 수 있었다.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이 중에서 구연자들이 “주인이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하인의 배를 굶리니 그렇다.”라는 등 하인 먹을 것도 살펴주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평소에 자신의 본능과 감정, 몸과 마음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통제해온 사람들에게서 자아가 지쳤을 때 마치 민란이 일 듯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폭식, 폭음, 게임이나 성적인 충동의 탐닉 등의 현상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본 민담은 내면의 그림자를 홀대하지 말고 관심을 두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 즉 자신의 본능적 감정적 측면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하는 길임을 말해준다.

3. 주인은 하인을 죽이라는 편지를 하인의 등에 써서 내려 보낸다.

1) 하인을 죽이려는 주인

주인은 하인의 위험성을 더 인식하고 확실히 죽일 방법을 찾으려 한다. 기존의 질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은 기존 질서에는 위협이고 적대 세력이며, 그런 행동만으로도 질서를 흔드는 작용이기 때문에 민담에서 새로운 영웅의 출현은 언제나 박해받고 위협된다.⁶⁸⁾ 그것은 그간 보편적인 정신적 법칙이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낡아버리고 갱신되지 않을 수 없는 집단적 의식이 그 변화를 거부하고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작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여러 민담에서 젊은 왕으로의 교체를 거부하는 늙은 왕으로 상징된다. 개인의 심리학에서는 자아의식이 그림자를 완전히 억압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주인과 하인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이미 자아의식이 그림자와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의 요구가 전체정신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인은 주인의 배를 굶리고 분통이 터지게 함으로써 주인이 하인처럼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기회, 즉 하인을 통합할 기회를 준다. 즉, 그림자는 자아에게 욕구 불만과 분노를 촉발하면서 자아가 그림자 측면을 동화하도록 자극하지만 자아는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부정하고 마침내 그것

68) 헤라클레스의 탄생에 여신 헤라는 뱀을 보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 예언에 헤롯왕은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하여 예수를 제거하려 한다.

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자아는 그림자의 측면을 인식하고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그림자를 배척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삶에서 제거함으로써 정신의 유일한 주인이 자신이라는 무지와 아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삶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며 살려고 하는 ‘일방적 자아의 태도’에 해당하며,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새로운 요소를 억압하고 변화를 거부하려는 태도이다.

2) 등편지

마침내 주인은 등편지를 보내어 하인을 죽이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다. 편지를 보내어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만 실패하는 모티프는 민담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제이다. 그것은 글자의 힘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우리 내면의 어리석은 측면을 보여주며, 조선 시대 양반들의 지적인 우월감과 관념적 세계관의 허점을 비웃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림자를 감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등편지는 주지화(intellectualization)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관련된다. 그런데 본 민담은 이런 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의 제한성을 말해준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으로 이해하였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여기는 오류와 같다. 따라서 본 민담은 그림자와 트릭스터의 문제는 직접적인 실천의 문제이며, 관념적 파악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트릭스터 문제의 해법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그림자의 등에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몸의 부분으로 무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민담의 등편지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하인의 등을 하인은 볼 수 없고 주인은 훤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보는다면, 하인으로 상징되는 무의식과 마주 보지 않고 무의식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것은 아직 그림자가 자아보다 열등하며 자아의 지성과 의지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오만한 자아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하인은 아낙과 꿀장수를 속여 얻은 꿀메주로 배고픈 중에게 등편지를 바꿔쓰게 한다.

1)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주인에 의한 하인의 살해 시도가 일어나지만, 하인은 또 피를 써서 꿀 묻은 메주를 만들어 편지를 바꿔 쓰고 주인의 막내 누이와 혼인을 한다.⁶⁹⁾ 그런데 하인이 주인을 골리고 이겨 먹는 것까지는 함께 즐기며 쾌재를 부를 수 있지만, 죄 없는 민초를 속여 메주⁷⁰⁾와 꿀을 빼앗는 것은 야비하게까지 느껴지고 고압적인 양반이나 탐관오리들을 혼쫓내주는 선한 민중 영웅을 기대했다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⁷¹⁾ 더더구나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면, 아무 연고 없이 소경⁷²⁾의 목숨을 대신 잃게 만들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인 하인의 모습에서 그가 개인이 아닌 트릭스터 원형상이라는 점이 어김없이 분명해진다. 하인은 등편지를 바꿔써서 목숨을 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인의 막내 누이와 혼인을 한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고 기만하는 트릭스터 이야기들에서처럼 성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막내 누이와의 혼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본 민담을 보면 처음엔 주인을 애먹이기만 하던 하인이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집으로 내려보내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가서는 주인이 또다시 하인을 죽이려 하자 주인집 식구를 모두 죽이고 주인 자리를 차지해버린다. 즉, 개인적 그림자상이 변화해 점차 원형적 고대적 트릭스터의 특성을 띠게 되는 듯한 모습이다. 자아에게 수용되지 못한 콤플렉스들은 비활성화 상태로 무의식에 머물게 되며 그러한 억압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고대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즉, 의식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도덕적 검토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특성이 커지며, 지속될 경우 중국에는 원형적 작용에 의한 자아의 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하인의 행동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본

69) 변이에서 막내딸인 경우가 더 흔하다.

70) 변이에서 떡보리와 꿀을 빼앗아 꿀떡을 만드는 경우가 더 흔하다.

71)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주인을 속여먹는 하인의 모습에 즐거워하던 청중들의 반응도 “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는 반응들과 “고놈 참 대단하다.”하는 반응들로 갈린다.

72) 변이에서 유기장수, 통기계장수, 새우젓장수, 노인 등으로 대개 애꾸눈이나 눈병이 낫거나 절름발이이다.

능적 행동으로 선악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 의식의 태도로 인해 심각하게 억압을 받게 된다면, 그때 생존 본능의 강력한 반발은 자아를 무력화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인의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 태도로 야기 되었다고 하겠다. 수용되었다면 인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림자의 측면이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원형적인 수준의 강력한 보상적 힘을 가지고 자아를 엄습하게 된다.

폰 프란츠(M.L. von Franz)는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Redemption Motif in Fairytales>에서 자신의 야심적인 그림자를 억압하고 열심히 살지 않고 평화로이 게으르게 살려는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⁷³⁾ 그의 무의식적 야망은 그를 성공시킬 영감을 주겠다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녀가 성공한 남성과 도망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했다. 그가 자신의 무의식적 야망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더이상 여성과의 관계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폰 프란츠는 무의식화된 콤플렉스들은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콤플렉스들을 오염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한다. 본 민담에서도 먹을 것도 돈도 없이 집으로 보내진 하인, 즉 의식의 아무런 관심이나 검토도 받지 못하고 무의식에 억압당하는 그림자는 필요한 리비도를 아이를 기르는 떡방아 찧는 아낙네, 꿀 파는 장수, 배고픈 증으로 상징되는 정신의 다른 영역들에서 흠치게 된다. 즉, 억압된 그림자 문제가 우회로를 통해 여성적 모성적 요소, 공정한 상호관계성, 종교성 등의 요소를 손상시키며 되돌아오게 된다. 이런 심리적 상황에 있는 경우 사람들은 그림자의 심각한 억압으로 인해 인격의 여러 측면에 신경증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폰 프란츠는 의식이 메시지를 받을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장애, 꿈, 증상은 일어나지만 무의식은 의식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단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의식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⁷⁴⁾

이야기의 이 부분은 한편 하인에게 역시 아무 연고 없이 속고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트릭스터 원형의 다른 측면도 보여준다. 교활하

73) Von Franz ML (1980): *Psychological Meaning of Redemption Motif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pp40-41.

74) Von Franz ML (1980): *Ibid.*, pp67-69.

며 동시에 어리숙한 트릭스터상의 양면성이 본 민담에서는 꽤 많은 하인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로 나뉘어 표현되고 있다. 트릭스터 이야기의 역할 중 하나는 인간에게 있는 이런 어둔하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트릭스터의 측면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트릭스터를 감지하고 억압하려 하는 주인과 같은 자아의 태도가 트릭스터를 자극해 활성화시키지만, 순진한 아낙이나 꼴장수 같은 트릭스터에 무지한 측면 역시 트릭스터가 활동하게 하는 요소라 하겠다. 현실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태도로 좋은 면만을 보고 위험한 관계나 일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순진하고 낙관적인 인식에 머물러는 자아의식의 이런 허점이 트릭스터가 안팎에서 파고들게 하는 부분이 된다.

2) 새로운 등편지

그렇다면 하인이 순박한 사람들에게 하는 악해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아의 그림자 억압이라는 원인에 의해 우리 내면의 트릭스터 원형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이 보상적으로 발현된 결과로만 볼 수 있을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그림자 억압에 따른 자아와 무의식의 콤플렉스들에 대한 파괴적 영향만을 그 의미로 보아야 할까. 하인의 행동은 사회에 집단적 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개인에게는 새로운 자아의 태도를 가져오는 보상작용인 무의식의 창조적이고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민담에서 돕는 동물들은 주인공이 선량하거나 동물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혹은 주인공의 불쌍함 때문에 주인공을 돕는다. 그러나 본 민담에서는 주인공이 민초들을 속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등편지를 쓰게 되는 전환을 맞이한다. 하인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부도덕한 행동을 함으로써 놀랍게도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등편지를 얻어내고 막내 누이와 혼인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하인의 이런 면모는 트릭스터 신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북유럽의 트릭스터 신인 로키는 난쟁이들에게 보물들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신들의 세계에 가져온다. 그는 정의롭고 점잖은 신이 아니라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며 번뜩이는 재치를 지닌 사기꾼 신이다. 즉, 난쟁이들로 상징되는 무의식의 창조적인 능력에서 건져 올려 의식에게 전달해주는 프로

메테우스 같은 존재이다.⁷⁵⁾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에는 제한적인 의식으로 는 불가능한 창조적 해법들이 담겨있다고 본다. 용의 언급처럼 트릭스터는 절대적으로 미분화된 인간 의식으로서 동물의 정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즉 의식의 매우 초기 단계로,⁷⁶⁾ 본능과 정신이 공존하는 미분화된 정신의 층에 속하며, 의식과 비교할 때 집단적 무의식과 아직 분리되지 않은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의 한계 상황에서 무의식에서 새로운 해법을 낚아채오는 트릭스터의 원형이 발휘될 때 본능적 욕구의 측면들이 새로운 의식의 가능성과 함께 혼재되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인은 꿀메주를 만드는 재치를 통해 상황을 전환시킨다. 빈손으로 시골집으로 내려보내진 하인은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내 누이와 혼인할 수 있게 새로운 등편지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낙네, 꿀장수, 배고픈 증으로 상징되는 집단적 의식에서 그간 무시되어오던 정신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이를 업고 떡방아를 찧는 아낙네는 여성성의 생산적 측면을 상징하며, 가부장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무시되었던 개인, 주관, 감정, 모성 등의 정신 영역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꿀⁷⁷⁾ 파는 장수는 관념적인 성리학 중심의 사회에서 외면받았던 실용성의 측면들로 물질, 기술, 실리성 등을 나타내며, 배고픈 증은 조선 시대 유교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집단적이고 외향적인 세계관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종교적 태도와 영적 요소 등의 결핍과 관련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즉, 하인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의식성은 기존의 틀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 의식에서 무시되어온 여

75) 그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발명이나 인식이 오는 방식이 성실한 노력, 도덕적 선행 등 의식의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지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기존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만큼 오로지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게 임하는 열린 방식을 통해 할 수도 있다는 점과 닿아있다.

76) Radin P (1972):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igure",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pp195-211.

77)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 2권, 동아출판사, 서울, pp71-73. 꿀은 보약이자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의 하나로, 제사나 잔치 음식에 사용하는 귀물이며 풍요를 나타낸다. 또한 그 달콤함, 욕심, 쾌락, 유희를 나타내기도 한다.

78) 상전 속이는 하인류의 민담과 그와 유사한 사기꾼 유형의 이야기들이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현상 속에서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 더해, 배고픈 증이 유교 문화에 따른 불교 신앙과의 관계 에너지 부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본 민담은 조선조 후기의 집단적 의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된다.

성성, 실용성, 불교적 종교성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태도이며, 조선 후기 고루화된 집단적 의식에 대한 보상과 대안으로 제시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회는 항상 사회 문제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범, 가치, 지식 등의 새로운 시대의 집단적 정신적 태도와 문화를 형성해 왔다. 개인의 정신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생길 때 의식의 중심인 자아의 태도는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하인은 그러한 변화를 이끌고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집단적 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자아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요소를 상징한다.

5. 하인과 주인의 막내 누이를 결혼시키라는 편지로 바꿔 써서 혼인한다.

막내 누이 혹은 막내딸로 나오는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녀는 물론 가장 사랑받는 동생이나 딸일 수도 있지만, 본 민담이 조선 후기의 심리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나이 어린 여성인 막내 누이는 주인집 식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위를 갖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막내 누이는 가장 어리거나 바보 취급을 받는 영웅의 상징과 마찬가지로 의식에 의해 그간 소홀히 다루어진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 막내 누이가 하인과 혼인하여 한 쌍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막내 누이는 의식이 가장 경화된 상태에서도 하인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하여 대극합일(conjunctio)을 할 수 있는 여성적인 정신요소, 에로스 원리(eros principle)를 상징한다. 폰 프란츠는 에로스 원리는 무의식에 대한 관계,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여성성과의 관계의 원리를 상징하며, 에로스 원리와 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집단적 의식이 경직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⁷⁹⁾ 따라서 본 민담에서 하인이 막내 누이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집단적 의식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그것에 수반되어야 하는 감정적 작용과 비합리적인 충동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서 보자면, 그림자 수용을 돕는 정신적 측면으로 여성적 요소가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⁸⁰⁾ 일반적으로 여성적 정신요소, 에로스

79)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73.

80) Radin P (1972): Ibid., p210. 융은 개인의 경우에는, 그림자에 의해 배열되는 문제는 아니나 차원, 즉 관계성을 통해 답해진다고 하였다.

원리는 나누고 대립하기보다는 합치고 수용하는, 새로운 것이 싹틀 수 있게 정적으로 때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감정과 본능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신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만일 부자집 주인과 같은 심리적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신 안의 막내 누이와 같은 측면을 살린다면 파국적 결말이 아닌 대극합일, 즉 그림자가 통합된 인격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선입관을 가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판단을 멈추고 겸허히 좀 두고 보는 것, 그래서 실제로 겪어보고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경우 그간 부정적으로만 판단했던 그림자 특성에 대해서 종종 새로운 인식과 긍정적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즉, 감정적 체험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인격에 변화가 생긴다. 이것을 내면의 안내자로서의 아니마의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민담에서 막내 누이와의 혼인으로 하인은 주인집의 식구가 된다. 즉 주인과 하인 사이에 관계성이 생기며 상호 변환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지하국대적설화’에서 도둑 귀신에 잡혀간 원님의 딸이 도둑의 약점을 알고 있어 주인공이 도둑을 물리치고 잡혀간 사람들과 금은보화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올 방법을 알려준다. 이것은 아니마를 통한 관계성의 형성이 그림자 원형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⁸¹⁾ 그러나 본 민담의 이야기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한편, 하인과 막내 누이의 혼인은 그림자가 자아로부터 아니마를 빼앗았음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아니마와의 합일로 더욱 감정적 가치를 얻게 되고 생산력을 갖게 되며, 따라서 자아에 대한 그림자의 영향력은 더 강해진다.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서 보자면 그림자의 투사가 더욱 심해져 자아는 바깥의 그림자상(인물)에 대한 강한 질투나 분노와 같은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와 아니마 쌍에 대한 주제는 익히 알려져 있다. 폰 프란츠는 앞서 소개한 게으른 남성 사례처럼 자신의 그림자에 무의식적인 경우 ‘그림자 인물이 그의 아니마 여성을 빼앗아가는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한다.⁸²⁾ 그러므로 자아가 아니마와 관계 맺음으로써 삶에 대한 흥미와 창조적 영감을

81) 이부영 (1999): 분석심리학의 탐구3부작 ① 《그림자-우리 안의 어두운 반려자》, 한길사, 서울, pp248-251.

82) Von Franz ML (1980): Ibid., pp40-41.

되찾으려면 먼저 그의 그림자를 의식화해야 한다.⁸³⁾ 변이에서 '이미 혼인하였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땅을 나눠주고 따로 살림을 내준다든지 하는 예도 있으나, 본 민담에서 주인은 막내 누이와 혼인한 하인을 다시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자아가 그림자를 제거하고 아니마를 낮은 수준에서 보존하려는 시도이다. 모성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에게서 '남자답고 강인한 그림자를 수용하고, 소년이 아닌 남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아니마를 모성의 그늘 속에 두고 본능적이고 모성적인 보살핌만을 요구하려는 경우를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⁸⁴⁾

6. 주인은 하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 하지만, 소경을 대신 매달리게 하고 달아난다.

주인에 의한 하인의 살해 시도가 다시 한 번 일어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야기의 말미에 대극의 반전(enantiodromia)을 불러온다. 이러한 대극 반전은 기존의 지배적인 집단적 의식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의식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편 변화를 막으려는 또 다른 살해 시도는 이 민담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후기의 집단적 의식의 폐쇄성과 경화의 정도를 암시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그림자의 통합을 완전히 배척하는 자아의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해 이야기는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낡은 의식성의 완전한 교체로 나아간다.

1) 달아나는 존재로서의 트릭스터

민담대백과는 “트릭스터는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예의와 도덕, 법과 규범, 금기까지 모두 그 경계를 허물고 반항하고 대적하는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평가도 받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⁸⁵⁾ 실제로도 트릭스터 민담들을 살펴보면 대개 트릭스터의 황당한 사기극을 그저 통쾌하거나 어처구니없는 희극적인 이야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도덕적인 물음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경우

83) 이부영 (1999): 앞의 책, p255.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소홀히 하면 그림자가 아니마를 감싸버려서 아니마를 인식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그림자에 오염되어 분간하기 어려웠던 아니마가 드러나서 인식하기 쉬워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84) Von Franz ML (1980): Ibid., pp40-41.

85) Rankle K et al. (2010): Ibid., pp914-924.

가 혼하다.⁸⁶⁾ 그러나 트릭스터 신화와 민담들에서 그들의 말썽과 사기행각에 분노한 신들이나 동물 세계의 왕들은 그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트릭스터가 개과천선을 하는 일은 드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야기 속 트릭스터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여우 르나르는 이장그렝과의 결투에서 지고 수도원에서 개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닭을 다시 잡아먹고 달아나버리고, 털 오일렌스피겔도 교수형을 당하지만 새로운 오일렌스피겔 이야기가 반복될 것임이 암시된다. 본 민담이나 일본의 타와라 야쿠시, 몽골의 척척생계 이야기도 주인공을 나무에 매달거나 가마니에 넣어 바다에 던지려 하지만 또 다른 속임수를 써서 주인공은 달아나고 만다. 프로메테우스나 로키는 신들로부터 코카서스 산이나 지하계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고통을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결국은 풀려나게 된다. 특히 로키는 신들의 세계가 종말을 고할 때 신들에 대항해 싸우도록 풀려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다. 한편, 스스로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는 신들도 있는데 게르만족의 주신으로 분노의 신인 보탄은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인류에게 문자를 가져다주게 된다. 헨더슨(Henderson)은 왁준카가가 그의 여정을 통해 불경스럽고 열등한 존재적 특성에서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해나가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를 떠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을 인간이 가장 원

86) 본 민담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구연된 민담 속 제보자의 이야기나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하인의 사기극에 대해서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이야기를 중단하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폭소를 하고 하인의 수단에 새삼 감탄하기도 하고 “거짓말이 안 들어가구 되나. 거짓말 좀 들어가야 푸집하다구” 하는가 하면 “글만 배웠으면 큰 사람 됐을 건데” “본래 정승할 사람인데 잡놈이 돼가지구” “왕군장골때인줄 알고 애꼬뱅이를 죽였는데 이 왕군장골때는 죽지않고 살아있으니 이 놈이 또 무슨 방책을 꾸며서 상전을 해칠지 두고 봐야 알겠지” 하는 등 그 반응은 다양하다. 본 민담 역시 다른 트릭스터 민담들처럼 어떤 도덕적 결말을 내리지 않으며 민담에 대한 청중 각자의 도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금기를 깨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그림자를 체험하며 우리 안의 그런 요소에 허용적이 되며 긍정성을 느끼게 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 안의 악과 열등함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느끼게 해준다. 트릭스터가 이야기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들이 그림자의 동화과정이며 트릭스터 민담의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 윌슨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igure”에서 트릭스터 이야기는 그림자를 의식 수준에서 유지하고 의식의 비판을 받게 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트릭스터 신화가 일종의 치료적 기억(therapeutic anamnesia)의 기능을 통해 집단적 무의식의 그림자의 점진적인 문명화, 즉 동화(assimilation)을 유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그림자 동화의 필요성이 인간이 야만성에서 한참 멀어진 현대사회에도 트릭스터 이야기가 지속되는 목적의미라고 할 수 있다.

시적인 정신상태에서 발전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이해한다.⁸⁷⁾

이처럼 트릭스터에 대한 민담과 신화의 결말은 다양하다. 그들의 불경스럽고 말썽을 일으키는 측면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단죄하려는 태도 역시 우리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에 달아나고 다시 사고를 칠 것이라는 예감은 트릭스터의 파괴적 측면은 도덕적 선의나 인간적인 결단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듯하다. 그것은 용이 강조한 ‘악은 선의 결핍(privatio boni)이 아니며, 실체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용은 선과 악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알고 있고 옳게 행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⁸⁸⁾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내가 이제 옳은 일을 하기를 하느님께 바란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고 하였다.⁸⁹⁾ 즉, 인간은 우리 자신의 이중성-정신적이고 영적인 고상한 존재이고자 하나, 그만큼 동물적이고 충동적이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관념이 아닌 실제로서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매달리기

주인은 하인을 두들겨 패서 가죽 부대에 넣어 길가의 큰 나뭇가지에 매달았다가 며칠 뒤 강물에 던져 죽이려고 한다. 하인은 가죽 부대에 갇혀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많은 변이에서 망태기, 구럭, 자루 등에 넣어진다. 가죽에 싸이는 주제는 통과 의례적 의미와 연결되고 고대 입문식이나 장례 제의, 신화 등에 나타나는데, 조선 시대에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의 하나로 봉쇄법(isolation)이 사용되었다.⁹⁰⁾ 자루나 상자에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주제는 신화소로서 고래에 갇혔다가 살아나는 요나의 이야기, 금강산 호랑이 배속에 갇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 모세나 오시리스의 신화 등 많은 이야기에서 나타나며 프로베니우스에 의하면 태양영웅 신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영웅의 죽음과 재탄생을 상징한다. 자루나 상자는 모성의 자궁을 상징하며

87) Jung CG, 이부영(역) (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p121-127.

88)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용 기본저작집 제9권, “분석심리학에서의 선과 악”, 《인간과 문화》, 서울출판사, 서울, p135.

89)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135.

90) Eliade M, 이동하(역) (1997): 《성과 속-종교의 본질》, 학민사, 서울, p163.

Propp V, 최애리(역) (1990):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 지성사, 서울, pp267-271.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으로 퇴행 후 새롭게 재탄생되는 의식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⁹¹⁾ 그렇다면 본 민담의 주인공인 하인 역시 최종단계가 오게 하도록 가족 부대 안에 갇혀서 통과와 변환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인이 매달리는 곳은 큰 나뭇가지로 나무 역시 생명을 주는 모성의 상징이며,⁹²⁾ 보탄이 매달린 세계수(world axis)인 이그드라실은 정신을 낳은 모체로서 집단적 무의식을 상징하는 신성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인은 정신의 모체로서의 집단적 무의식에 접촉해야 한다. 여기서 나무에 매달림의 주제, 즉 매다는 것, 붙잡는 것의 주제가 나오는데 나무, 교수대, 십자가에 매달리는 신의 상징은 매우 근원적인 것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매달리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문명을 가져다주고 인간 의식성의 진보를 가져다준다고 폰 프란츠는 이야기한다.⁹³⁾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탄은 저승세계의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창을 찌른 상태로 9일간 명상을 하여 인간에게 룬 문자를 가져다준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고 죽음에서 부활한다. 로키와 프로메테우스도 매달림의 벌을 받는다.

폰 프란츠는 또한 나무에 매달린 신의 주제는 인간 실존의 비극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측면이나 동물적 측면 어느 한쪽대로 사는 것이 '내면의 고유한 인격 발달의 과정'과 일치되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⁹⁴⁾ 비자발적으로 무의식적인 발달과정에 못 박히며 우리는 의식보다 큰 무언가에게 항복하고, 의식적인 인격의 자유 의지는 신성한 어린이 신이 나무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처럼

91)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앞의 책, pp54-56. 그물은 사람이나 신적 존재를 포획하여 부자유하게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고 욕정이나 인연에 얽매이는 것이기도 하다.

9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앞의 책, pp136-141. 신성한 나무, 생명의 나무, 세계의 축으로서의 나무 등의 관념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환웅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 태백산의 신단수에서 먼저 신성한 나무의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당산나무가 있으며 나무는 무속신들이 내려오는 신의 강림처이다. 시신을 나무에 얹어 놓는 수장(樹葬) 풍습은 생명의 기원인 나무에 영혼을 되돌림으로써 영원한 삶의 품속에 안기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양의 아들 신들이 아티스나 아도니스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여기서 나무는 태모가 지닌 지배욕, 파괴력과 아울러 무궁한 재생과 신생의 충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용은 철학의 나무(arbor philosophorum) 관념과 비교하며 나무란 전체성의 상징이자 자기(Self) 상징이라고 하였다.

93) Von Franz ML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p43-46.

94) Von Franz ML (1995): *Ibid.*, pp70-71.

죽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극의 갈등으로 리비도의 흐름이 멈추고 정지된 삶의 상황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죽음과 같은 것이다.⁹⁵⁾ 폰 프란츠는 이때 자아가 결정하기를 포기하고 항복하여 집단적 무의식에 귀의할 때 정신의 심연에서 오는 인도를 만나게 되고 무의식으로부터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창조적인 해법을 통해 삶을 완전히 다른 단계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⁹⁶⁾ 갈등은 풀리지 않았지만 달라진다. 그와 같은 변환을 위해서는 자아가 자신의 판단, 욕망, 본능대로 결정하지 않고 간히고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으로써 우리 내면의 미지의 힘에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새로운 정신성의 탄생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자아가 정신의 주인이 아님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자아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Self)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민담에서 주인이 하인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대극갈등의 정점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전체 정신(Self)에 맡겨지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변환(transform)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주인은 민담 속에서 새로운 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늙은 왕과 같이 변화에 저항하는 부분이며, 주인은 다만 하인을 죽이려 할 뿐이지만 그 행위는 이제 그림자 갈등을 자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Self)의 관점에서 다루게 만든다.

3) 소 경

하인은 지나가는 장사꾼이나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하여 대신 매달아 죽게 한다. 속는 사람으로 유기장수가 가장 흔히 등장하며 용기장수 등 장사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신체적 장애는 소경이나, 앵무눈, 눈병난 사람이 가장 많고 다리를 저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다.⁹⁷⁾

본 민담에서 하인은 지나가던 소경을 “눈뿔다, 눈뿔다.” 하며 속여 대신 부대 안에 넣어 죽게 하고 달아난다. 사람이 눈을 감음은 곧 죽음을 뜻하므로 눈은 생명을 상징하며, 또한 마음의 창으로 마음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⁹⁸⁾ 한편 상대방을 침해하여 파괴하는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95) Von Franz ML (1995): Ibid., pp70-71.

96) Von Franz ML (1995): Ibid., pp70-71.

97) 22편 민담의 변이에서 장사꾼이 9편, 눈병이 났거나 소경인 경우가 9편, 절름발이가 4편으로 관찰된다.

9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앞의 책, pp175-178.

눈은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빛은 정신과 지성의 상징이며 눈에 빛이 드는 것은 정신과 지성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은 태양, 인식, 이성, 성찰, 각성 등과 관계되며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모든 태양신의 상징인데, 반대로 가시적인 것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⁹⁹⁾ 맹인은 속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맑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고 감각이 예민하므로 앞일을 미리 예지한다고 여겨졌고, 맹인과 무격(巫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⁰⁰⁾ 이런 측면에서 소경을 외부 세계에서 내면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내적 통찰을 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본 민담의 맥락에서 소경은 “눈뻘다.”는 말에 속아 목숨을 잃는 어리석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눈을 낮게 하겠다는 맹목성 때문에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나타낸다. 다리는 걸음을 걷기를 위한 신체 기관으로 현실과의 관계에서 행동과 실천과 관계된다. 또한 다리는 사회적인 유대(social bonding)의 상징인데, 상대방에게 다가가 교류하고 개인의 고립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¹⁾ 한편, 다리가 하나인 신들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축(axis), 달, 남근을 상징한다고 한다.¹⁰²⁾ 애꾸눈이나 눈병 난 사람 역시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향된 관점이나 건강하지 못한 관점을 나타내는 것처럼, 장사꾼들이 절름발이인 것은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균형 잡히지 않은 문제를 나타낸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다수의 변이에서 장사꾼, 특히 유기장수나 옹기장수 등 그릇을 파는 사람들이 하인 대신 죽게 되는데 이들 장사꾼 역시 소경이거나 절름발이 등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속담 속에 나타나는 장사꾼에 대한 상징은 주로 이익과 탐욕으로 수렴되는 듯하며, 탐욕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¹⁰³⁾ 따라서 종합해보면 하인 대신 매달려 죽게 되는 존재는 과도한 집착과 욕심 그로 인해 맹목적이고 균형을 잃은 관점과

9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앞의 책, pp175-178.

100)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앞의 책, pp175-178.

101) Chevalier J, Gheerbrant A (1997): Ibid., p594.

102) Cooper JC, 이윤기(역) (2007):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글방, 서울. p194.

103) 말 죽은데 체장수 모이듯(남의 불행은 아랑곳없이 제 이익만 채우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이르는 말), 청기와 장수(이익을 혼자 차지할 생각으로 남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 송도 오이 장수(이익을 더 많이 보려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 헛수고만 하고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 장사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은 이익과 탐욕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행동을 상징한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자아가 원하는 것에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자아중심적인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흔히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인 대신 소경이 죽는 것이 어떤 목적의미를 갖는가. 우선 하인 대신 죽어야 하는 소경은 '눈먼 존재'로 주인-하인으로 상징되는 대극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정신적 요소의 상징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나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집단적 무의식을 상징하는 모성원형상으로서 파괴와 재생의 터이다. 또한 나무는 내면의 방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발달, 개성화 과정의 충동과 과정, 즉 자기(Self)의 상징이다.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갈등이 점점 짙어지며, 마침내 이 문제는 나무 앞에 오게 된다. 즉, 이 대극갈등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으로 상징되는 '더 근원적인 전체성의 관점에서의 검토와 개입'으로 이어진다.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소경 혹은 눈병 난 유기장수가 대신 죽고 하인은 풀려나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진행된다. 소경이나 눈병 난 유기장수가 죽는 것은 경계해야 할 측면으로서 트릭스터에 섞여 있는 맹목성, 어리석음, 탐욕적 요소를 구분하고 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트릭스터 원형이 갖는 본능에 대한 무분별한 욕심과 맹목적 태도는 인간적인 고려가 없다면 위험한 것이며, 팽창을 가져올 수 있고 반사회적인 태도에 대한 정당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데렐라류 민담 속 의붓언니들을 신데렐라와 구분하고 처단하는 주제와 유사한데, 새로운 의식의 요소로 확립되기 전 먼저 구분되고 정화되어야 할 측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민담 속의 죄 없어 보이는 소경이나 눈병 난 유기장수의 죽음은 하인이 주인의 자리에 서기 전에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인이 가족 부대 안에 갇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빠져나오으로써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가. 본 민담의 트릭스터는 입문식(initiation)을 원치 않으며, 그에게는 매달림과 견딤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딘과 그리스도는 스스로 숙명을 받아들여 창에 찢린 채 나무에 매달리거나 부활하기 위해 매달려 죽었지만, 본 민담 속의 하인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다. 그는 철두철미 이기적이며 가족 부대에서 달아난 이후에도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담은 이런 트릭스터의 이기심 때문에 누가 희생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속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해볼 수 있다. 트릭스터

신화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 행동하는 트릭스터가 우연히 혹은 부수적으로 구원과 치유를 가져오는 경우들과 비교해볼 때 본 민담에서 하인이 주인 집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는 것에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윤은 “만약 트릭스터 신화의 마지막에 구세주가 제시된다면, 이 위로하는 예감이나 희망은 어떤 재앙이나 발생한 다른 것이 의식적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그림자의 인식과 피할 수 없는 통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므로, 구세주 외에는 누구도 뒤엎킨 운명의 거미줄을 되돌릴 수 없다. (중략) 개인의 역사처럼 집단의 역사에서 모든 것은 의식의 발달에 달려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무의식’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고, 따라서 치유뿐만 아니라 빛도 가져다준다.”라고 하였다.¹⁰⁴⁾ 본 민담에서 주인과 하인의 대극은 합일되지 못하고 하인 그림자에 의해서 대치되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민담 ‘두 여행자’의 경우 재단사와 제화공은 서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민담의 마지막에 제화공이 쫓겨나고 재단사가 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재단사는 제화공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게 된다. 즉, 그의 그림자 측면의 일부를 통합하는 것이다.¹⁰⁵⁾ 그러나 본 민담에서 주인과 하인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인의 막내 누이와 결혼함으로써 기존 의식의 에로스적 측면은 사라지지 않고 하인과 결합한 것은 작은 진전이고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본 민담을 우리 내면의 원형적 그림자에 대해 경고하고 관조를 촉구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본다면, 그림자를 억압하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본 민담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7. 하인은 살아 돌아와 장인을 속여 용왕못에 처가 식구들을 모두 빠져 죽게 하고, 막내 누이와 돌아와 주인행세를 하며 잘 산다.

1) 주인집 망해 먹기

본 민담에서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죽고 하인과 막내 누이가 잘 살았다는 결

104) Radin P (1972): Ibid., p210.

105)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p60.

말은 낡은 집단적 의식이 파괴되고 감정적 활성을 동반하는 새로운 의식이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enantiodromia)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의 제거는 전체 정신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낡은 부분을 제거하려는 자연의 판단(nature's judgement)에 따라 자아의식의 태도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왕의 개신의 비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체뿐 아니라 집단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하려 하며, 물론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극복되어야 할 수동적 저항이 있으며, 이 저항은 그가 보호한다고 내세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⁶⁾ 그러므로 한편 끝까지 아집을 놓지 않는 자아의 경화된 태도가 결국 자아의 입장에서 볼 때 파국적 결말로 이끌어간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인의 그림자적 면모는 주인의 태도에 의해 점점 원형적 그림자상인 트릭스터의 면모로 변해간다. 이때 하인은 단지 개인적 무의식의 그림자가 아니라 융이 말한 자기 원형(Self archetype)의 그림자로서 개성화과정이 정체될 때 나타나는 이중 메르퀴리우스(Mercurius duplex), 즉 영혼의 안내자이자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트릭스터이다. 즉, 자기(Self)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존재이다. 폰 프란츠 역시 원형적 그림자상으로 보이는 것이 자기(Self)의 상, 즉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두운 동반자가 아닌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민담 속 영웅은 원형적 형상으로 자기(Self)와 일치해서 작용하는 자아의 모형을 가리킨다.¹⁰⁷⁾ 그녀는 이러한 모형은 자기의 요구에 따라 올바르게 작용하는 자아를 가리키며, 그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영웅은 또한 자기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본 민담 속 하인은 밤향해 여행(night sea journey)을 떠나 괴물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며 그 앞에 삼켜졌던 것들도 함께 빠져나오게 하는 영웅처럼 가족 부대에 갇혔다가 빠져나온다. 본 민담에서는 하인이 빠져나오며 소경과 주인집 식구들은 죽고 하인과 막내 누이의 혼인 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민담 속 주인과 하인을 개인의 심리학적 입장에서 일방적 자아와 그림자로 보는 인과론적 관점보다는, 개성화과정을 주관하는 자기(Self)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작용하는 두 가지 자아 모형의 움직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인으로 상징되는

106)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앞의 책, p46.

107)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앞의 책, pp80-81.

악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그림자상은 자기에 일치하는 새로운 자아의 태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주인으로 상징되는 자아의 일방적인 태도는 꼭 비난받을만한 것은 아니며, 대극반전을 초래하여 의식을 새롭게 태생시키는 성스러운 죄(felix culpa)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주인이 끝까지 대립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고', '용왕못에 삼켜지는' 신성의 개입을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두 남성(늙은 주인과 어린 하인)의 대결 구도로 시작된 이야기는 젊은 남녀의 혼인 생활로 바뀌게 된다. 선악의 갈등에 끝까지 매달리는 인간의 정신은 자아에 의한 개인적 그림자의 동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근본적인 인격의 변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민담의 이 부분에서 '꼭 주인집 식구들을 몰살시켜야만 하는가?' 하는 마음도 들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는 과거의 것의 파괴, 즉 기존의 자아 입장의 포기나 사회 가치관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것은 기존의 자아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갓난아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지동설을 받아들이면서 천동설은 영구 폐기되었다. 본 민담에서 주인집 식구들은 집단적 무의식을 상징하는 물, '용왕못' 속으로 사라진다. 즉,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은 새로운 의식이 확립되면서 기존의 의식은 다시 무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혼인 이후의 이런 과정들은 그림자 동화 내지 집단적 의식의 교체 과정의 어려움과 완수를 위한 여러 단계의 필수성을 의미하는 듯하다. 또한 조선 후기 집단적 의식의 완고함에 따른 집단적 무의식의 극단적 보상은 전통이 점차 변화되기 보다는 급속히 파괴, 전복되고 무의식 속으로 사라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통해 되짚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경이 대신 죽고 마침내 결말에 가서는 주인집 식구가 몰살되고 하인이 주인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 트릭스터가 주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것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불러온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릭스터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그 앞에서 외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자기(Self)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기성과 무자비함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것이다. 해외 유희들에 등장하는 트릭스터들 역시 철저히 이기적이고 오직 욕

구를 채우고 위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고한 존재들을 속이거나 죽게 만드는데, 이들 트릭스터를 처단하거나 교화하려는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은 달아나버린다. 그러므로 본 민담 역시 이런 원형적 그림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의식이 통제하거나 의식에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관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다른 결말이 가능한가

결말에서 주인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재산 반을 떼어주고 나가 살라 한다거나, 나중에 하인이 죄의식에 시름시름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 등 일부 변이가 관찰된다. 이런 변이는 혼인 이후에 주인이 어쩔 수 없이 하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데서 끝나는 혼인형 민담이나 주인네를 몰살시킨 후에 하인이 보복을 받는 보복형 민담들로, 67편 중 28편인 살주형에 비해서 혼인형이 9편, 보복형이 5편으로 그 편수가 적다. 어떤 변이에서는 하인이 매달렸다가 달아난 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구연자는 “그가 아직 살아있으니 언제 무슨 일을 칠지 모른다.”라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한다. 보복형에서 복수를 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민담이라기보다는 조선 말 소설로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수정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지만, 트릭스터가 말썽을 부려서 낚고 정체된 것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악마적이고 위험천만하며 골치 아픈 존재이기에 이에 대한 보상적 태도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트릭스터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지 그저 파괴인지는 알 수가 없다. 트릭스터의 양가적 측면이 청중으로 하여금 이 민담의 결말을 그저 해피엔딩이라고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인에게 눈발을 떼어주고 근처에 살게 하는 등 그림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변이를 볼 때 그림자 혹은 트릭스터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그것은 그림자에 무지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주의하면서 수용하는 것으로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합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민담의 결론이 이처럼 여러 갈래라는 점은 트릭스터상에 대한 청중의 마

음 반응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우리의 무의식이 트릭스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결론이 안 나고 논란을 일으키는 모순덩어리 존재로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서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트릭스터 원형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우리 삶은 늘 딜레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기대하고 또 실망하며 살아가면서 마침내 우리 삶이 원래 그런 것임을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어려움이 필요한 것 같다. 본 민담을 살펴보면 트릭스터가 보여주는 모순성은 인생을 살아가며 깨달아가게 될 우리 삶과 세상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인류의 살아있는 정신적 유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삶에 대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가치들을 위협하고 배치되는 트릭스터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일 텐데 과연 그것은 길들여지거나 맹장처럼 퇴화되어야 하는 미개한 정신적 요소일 뿐일지 아닐지 어렵게 느껴져 수수께끼를 푸는 마음으로 민담을 해석해보려 하였다.

본 민담은 동화될 수 없는 집단적 그림자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데, 집단적인 그림자 상인 트릭스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트릭스터 원형을 불러내어 체험시키고 우리 의식에 작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트릭스터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데, 핵심은 결국 트릭스터로 인정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트릭스터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트릭스터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트릭스터 이야기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대극복합(Complexio oppositorum)

우리의 트릭스터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두 대극의 대립상황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지배적인 원리를 상징하는 양반과 집단적 무의식에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며 올라오는 새로운 원리를 상징하는 하인과의 대립이다. 그것은 외적(사회적)으로는 상위계층의 지배 논리와 하위계층의 혁명 논리로

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기도 하며, 내적(개인적)으로는 자아의 낯은 태도와 편견을 버리고 그림자를 통합하여 다시 정신적으로 갱신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본질적(원형적)으로는 한결같이 작동하고 있는 우주와 자연의 근본원리인 대극과 순환의 원리가 인간의 사회와 개인 정신을 통해 발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환을 가져오는 역동적인 원리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 콤플렉스들은 중립적인 것으로(*complexio oppositorum*), 그것이 의식의 빛 속으로 들어올 때 긍정과 부정, 양과 음이라는 대극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폰 프란츠는 말하고 있다.¹⁰⁸⁾ 그녀는 그것은 신화 속의 쌍둥이 모티프로 내향성과 외향성, 남성과 여성, 영적인 존재와 동물적인 존재 등과 같은 이중의 상징이지 어느 한쪽이 도덕적으로 다른 쪽보다 우위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모든 원형은 양면성을 띠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도덕적 태도를 갖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인간의 의식은 그 점을 잊고 의식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고수하려는 좁고 경직된 태도에 머물러는 성향을 갖고 있다.¹⁰⁹⁾ 사회나 개인이 집단적 의식에 지나치게 동화되어 그 대극적 성향을 잊은 듯이 살아갈 때, 즉 대극의 갈등이 커질 때 억압되었던 요소들은 보상작용으로서 거칠게 밀고 올라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지배원리에 동일시하고 있을 때에 트릭스터가 들이닥쳐 삶의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전체가 되기를 요구한다. 폰 프란츠는 집단적 의식이 처음의 감정적인 신선함이나 신성함(*numinosum*)이 사라져가고 대극의 합일을 가져올 힘을 잃게 될 때 대극들은 분리되고 모든 종류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것이 늙은 왕이 젊은 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¹¹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집단적인 세계관에서는 억압되거나 인지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 본 민담 속의 트릭스터인 막내 하인이 바로 그런 장난꾸러기, 익살꾼, 광대, 어린아이 같은 유쾌함을 동반하는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힘의 표현이다. 이것이 본 저자를 포함해 청

108) Von Franz ML (1995): Ibid., p35.

109) Von Franz ML (1995): Ibid., p35.

110) Von Franz ML (1995): Ibid., p28.

중들에게 이 민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공격성, 탐욕, 어리석음 등에 무의식적이거나 순진한 태도로 경시하거나 혹은 억압하려고만 든다면 그 힘이 파괴적으로 우리를 삼켜 사로잡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후자가 본 민담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내면의 트릭스터 원형의 양면성-파괴성과 창조성-에 대한 자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트릭스터 신화와 민담은 이와 관련된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트릭스터 이야기들은 트릭스터에 대한 무지와 억압을 경계하고 참여와 의식화를 도움으로써 트릭스터 원형의 파괴적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2. 트릭스터와 파괴성

1) 우리 내면의 악(Evilness in our mind)

먼저 트릭스터 원형의 파괴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민담의 주인공인 하인의 행동 특성을 보면, 우선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과 목적 달성에 도덕적인 성찰이나 금기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야비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은 청중들의 정의감에 영향을 준다. 즉, 이 이야기는 ‘나쁜 주인에게 복수하는 착한 하인’처럼 ‘선(善)’이 이기기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과는 관계가 멀며,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목숨 따위는 상관없이 없는 악한에 관해 이야기한다. 게다가 이야기는 그 악한이 강력하다는 것, 악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런 악한에 당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놀려주며 경계하도록 만든다.¹¹¹⁾

결국 이 민담은 이런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파괴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111) 트릭스터 신화들에 등장하는 트릭스터 신들은 흔히 교활하고 강력하면서도, 어리석어서 쉽게 당하고 놀림을 받는 등 교활함과 우둔함이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함께 지니는 모순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왁준카가는 영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뚱에 빠지는 등 비웃음을 사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영리한 프로메테우스와 우둔한 에피메테우스는 형제로서 트릭스터의 양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의식의 발전에 따라 트릭스터는 양면성을 잃고 교활한 사기꾼의 면모만을 주로 가지는 트릭스터 이야기들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트릭스터 원형의 어리석은 측면은 트릭스터 상에게 당하는 인물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활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측면이 두 주인공을 통해 이 이야기에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타적이며 고상한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그런 야비하고 저속하며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든 악은 바깥의 세상이나 타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투사하고, '우리 내면의 악'은 제거하거나 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모른 채 악에 사로잡혀 행동하거나 악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본 민담은 그런 순진하고 오만한 태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인은 귀찮고 말썽만 부리는 하인을 여러 차례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주인과 주인집 식구들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집단적 의식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작용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낙관하는 태도는 무의식에 대해 지나친 긍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투사하는 것이자 그림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과 실천에 대해 너무 작은 무게를 두는 태도이다. 의식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보상작용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이 자아의식에 범람하는 것과 같다. 인간 존재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 부르는 불행과 참사가 신문지면을 매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어리석게 그 희생물이 되지 않는 지혜와 주의를 가져야 한다.

주인이 하인을 잘 먹였다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주인집의 몰살은 개인에 따라서는 낯은 자아의 태도를 내려놓고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무지하거나 제거할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그림자에 의해 일어나는 자아의 점령, 즉 사로잡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나의 주인인 것이다. 지킬 박사가 자신안의 본능적 성질의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이드는 점차 괴물이 되며 마침내 자아의 파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융은 가톨릭의 악에 대한 관념인 '선의 결핍설(privatio boni)'에 대해서 비판하였는데,¹¹²⁾ 악은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본 민담 속에서나 다른 트릭스터 신화와 민담에서도 트릭스터가 쉽게 제거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악의 실체성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조심하거나 도망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1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p148-149.

2) 그림자의 참여(Participation of shadow)

하인은 철저히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인물임에도 청중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응원하기도 한다. 청중들은 민담을 들으며 억압적인 막강한 권위를 속임수와 지략으로 골탕 먹이고 통쾌하게 역전시키는 해방감과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용은 트릭스터 신화는 사회적 질서와 종교와 의례의 짐스러운 의무로부터 속박을 풀어주는 풍자를 제공하는 하나의 출구라고 이야기하였고, 유럽 중세의 카니발이나 독일민담의 폴터가이스트(poltergeist) 등이 사회의 집단적인 그림자를 숨 쉬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¹¹³⁾ 폰 프란츠 역시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 사회 규범에 반대되는 충격적인 행동을 의식에서 수행하게 하는 ‘그림자 세척 축제’가 존재함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림자를 사회 표면으로 끌어내어 구성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았다.¹¹⁴⁾ 이런 기능은 아프리카 트릭스터 아산티 설화나 투레 이야기가 이야기될 때에도 본 민담이나 하회별신굿놀이, 봉산탈춤이 벌어질 때에도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봉산탈춤에서 하인 말뚝이는 양반을 야유하고 부패한 승려를 놀리며 양반과 승려의 무능과 부패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조롱을 당한다. 트릭스터가 금기를 어기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할 때 관객은 즐거움을 느끼고 금기나 관습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대리만족함으로써 집단의 그림자들이 의식의 세계에 들어오고 숨통을 쉴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며, 그림자가 억압되었다가 발생하게 될 파괴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이기도 하다.¹¹⁵⁾ 트릭스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영웅 신화-주인공과 그에 대립하는 그림자가 등장하고, 그 그림자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식화하는 이야기-들과 달리 그림자 자신이 주인공이다. 그럼으로써 그림자의 특성을 위협하게 보다는 유머와 해학으로 그림자의 편이 되어 즐겁게 경험하게 해준다. 또 그림자의 못난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열등감을 떨게도 만든다. 그렇게 그림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그림자를 보다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그림자가 적대적인 악과 금기라는 느낌보다는 보다 수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의식에 다가올 수 있게 한다. 내담자들의 꿈의 변화에서도 처음엔 살인자나 맹수의 모습으로 쫓아오다가 점차 모습이 변해 친근

113) Radin P (1972): Ibid., C.G. Jung,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igure”, p195.

114) 이부영 (1999): 앞의 책, p215.

115) 이부영 (1999): 앞의 책, p220.

한 모습으로 다가와 짓궂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트릭스터 이야기는 그림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이행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그림자의 동화(Assimilation of shadow)

융은 트릭스터 이야기는 그림자를 의식 수준에서 유지하고 의식의 비판을 받게 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한다.¹¹⁶⁾ 그는 트릭스터 신화가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보다 발전된 개인의 눈앞에 이전의 낮은 지적, 도덕적 단계를 붙잡아두고, 그가 예전에는 어떠한지 잊지 않게 해주는 치료적 회상(therapeutic anamnesia)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⁷⁾ 트릭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원래 자율적이고 병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초적 악마적 형상의 점진적인 문명화, 즉 동화(assimilation)을 유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의식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런 열등한 측면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트릭스터 이야기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해방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열등함을 의식적으로 만날 때 열등함을 교정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의식적으로 조심하고 조절하려는 시도가 비로소 가능해짐을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림자 동화의 필요성이 인간이 야만성에서 한참 떨어진 현대사회에도 트릭스터 이야기가 지속되는 목적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금기를 깨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그림자를 체험하며 우리안의 그런 요소에 허용적이 되며 그 긍정성을 느끼게 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안의 악과 열등함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느끼게 해준다. 트릭스터 민담은 그것으로 우리 의식에 그림자의 통합을 어느 정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자에 의한 이런 인식은 인격 변화의 소중한 싹이 된다.

그러나 민담 속의 주인은 대극의 통합과 그림자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직된 자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분석 상황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내담자가 자아의식의 경직되고 일방적인 태도를 내려놓고(ego-cide), 그림자와 같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새로이 다가오는 낯설고 불쾌한 것들을 만나고자 성찰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 가능하게 된다. 폰 프란츠는 자아가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본능적 인격의 더 깊은 층, 즉 자기 원형

116) Radin P (1972): Ibid., C.G. Jung,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igure", pp205-206.

117) Radin P (1972): Ibid., pp205-206.

(Self archetype)과 연결되고 다시 전체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¹¹⁸⁾ 이에 대한 거부는 신경증적인 증상의 발현이나 외부 사건으로서 곤경을 가져 오고 자아에게 강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민담 속에서 주인과 주인집 가족들이 모두 몰살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자아의식의 완고한 경직성에 따른 '파괴적' 트릭스터 원형의 보상작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3. 트릭스터와 창조성

1) 보상성과 전체성(Compensation and wholeness)

트릭스터 이야기는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고 새 질서를 가져오는 자로서의 트릭스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트릭스터 원형은 '어떤 목적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신화나 민담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트릭스터는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생각하는 성찰되지 않은 무의식적 정신이지만 그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우연히 혹은 부수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하다.¹¹⁹⁾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문화영웅적인 트릭스터 신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과 같은 것을 신에게서 인간세계로 가져다주지만, 다른 트릭스터신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 하거나 실수로 얼떨결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왁준카가는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가지고 다니다가 커다란 성기를 놀리는 다람쥐가 나무속으로 들어가자 다람쥐를 쫓으려 성기를 나무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람쥐가 그의 성기를 갉아 먹어서 작은 성기 조각만을 다시 찾게 된다. 그러자 그는 "이 것을 사람들이 앞으로 감자라고 부르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물에 던지는데, 거기서 감자와 다른 식용식물들이 자라게 된다.¹²⁰⁾

또한 트릭스터는 인간의 분별적 자아의 입장에서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이라는 관점을 초월하여 혼들어놓음으로써 갈등에 점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즉 기존의 구조와 질서가 경화되었을 때 보상작용으로서 차올라 터짐으로써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현상은 기존의 집단적 정신의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다 근원

118) Von Franz ML (1995): Ibid., pp25-34.

119) Rankle K et al. (2010): Ibid., 많은 트릭스터 신들이 그러려는 의도의 유무와 별개로 문화영웅으로서 인간에게 불, 물, 경작할 식물들, 도구들을 가져다주었다.

120) Radin P (1972): Ibid., pp38-39.

적 정신인 집단적 무의식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그것은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이후의 새로운 것의 창조를 가져오나 어떤 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어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이고 무목적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나일강의 범람이나 산불의 파괴가 이후 탄생하는 생명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역할을 하며, 늪은 숲의 자기 파괴와 자정 작용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숲의 창조를 돕는다는 점에서 트릭스터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재생시키는(revivifying) 자연 에너지의 비합리적 발현 양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트릭스터는 좁아진 의식에 적절한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무의식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달과 소마(Soma)의 측면을 담고 있기도 하며, 의식의 합리적인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¹²¹⁾

그러나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인의 행동은 그만큼 새로운 집단적 의식의 등장이 처음에는 그 정도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개인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의식성은 기존 자아의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으로 여겨지고 수용하기 힘든 것임을 보여준다. 코란에서 모세가 위대한 지혜와 신비한 지식을 지닌 신의 종인 키드르(Khidr)의 행동을 키드르가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야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²⁾ 그림자의 활동이 집단적 의식의 쇠신을 요구하는 전체 정신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빼앗는 행위는 지금의 집단적 의식의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성의

121) Jung CG (1984): Ibid., pp367-400. 달은 지적인 표준과 무관한 생각들, 직관들, 환상들을 심어주고 그것은 낯설고 기괴하고 특이한 감정과 도취시키는 쾌락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것은 달-나무에서 와서 도취, 엑스터시, 압도하는 매력을 지닌 환상을 가져오는 소마 음료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조절되지 않는 이상한 종류의 생각들이 그의 존재의 낮은 깊이, 복부에서 오며 그러한 여성적 사고는 남성에게는 열등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달에 의해 형성된 생각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과 달리 압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출구를 제공하지 않으면 moon madness를 야기할 수 있다.

122) Von Franz ML (198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60. 기존의 지배적 집단적 의식(사회적 합의, 공동의 규준, 선입견, 가치관)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은 기존 관념을 흔든다는 점만으로도 자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악마적, 파괴적, 비도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을 예로 들더라도, 기존의 도덕적 종교적 잣대를 내려놓고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류의 문명이 진화하고 과학이 발전되어왔지만, 그러기 전까지 집단적 의식의 태도는 지동설을 악마의 이야기로 보고 처단하자는 태도였다.

구현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수 있다.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성의 구현과 대극합일의 방향이라고 답을 한다면, 하인이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 윤리성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¹²³⁾ 하인이 향하는 방향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막내 누이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주인의 권리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다. 즉, 그림자는 무의식에 억압되지 않고 자아와 함께 살 권리, 즉 의식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그림자를 통합하려 할 때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상식과 충돌하는 측면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기도 한다. 그것은 자아의 입장에서는 민담 속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럴 때 무엇이 옳은가는 전체 정신, 즉 ‘자기(Self)의 의도에 합치되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자아의 제한된 능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재생과 구원(Renewal and salvation)

그러므로 트릭스터 원형은 인간이 미리 예측할 수도,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자연의 힘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체 정신의 구현을 향한 충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트릭스터 원형은 파괴, 혼돈, 무질서를 가져오는 위협한 측면이나, 한편으론 파괴에 따른 재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요소이며, 파괴와 고통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는 중재자이기도 하다.¹²⁴⁾ 트릭스터는 동물적 정신이며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적응이 가장 안된 미개한 측면들로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러나 트릭스터가 의식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동물적인 충동의 분출만이 아니다. 트릭스터 원형은 가장 인간 이하의 것이나 인간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양면적인 신성이기에 본능의 영역에서 언어올 수 있는 초월적인 것, 더 높은 의식성과 성숙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도 있다.¹²⁵⁾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트릭스터 원형은 지성과 합리주의가 한계에 도달할 때 나타나며 그것은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메피

123)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분석심리학에 서의 선과 악”, pp131-132.

124) Radin P (1972): Ibid., p195.

125) Radin P (1972): Ibid., p203.

스토텔레스 같은 요소이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텔레스의 안내를 따라가며 팽창되고 고통을 받고 자기(Self)와 접촉하게 되며 '내성(內省)'하게 될 때 메피스토텔레스는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즉, 트릭스터 원형상인 메피스토텔레스는 내적 성장의 도구가 되며 보다 성숙한 의식과 통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무의식적 정신이다.¹²⁶⁾ 진정한 윤리(ethos)란 용에 의하면 전체성 그 자체이며 전체성이란 대극의 갈등을 거쳐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합해서 전체 정신을 내 안에 구현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윤리적인 것이 될 것이다.¹²⁷⁾

그러나 이렇게 트릭스터 원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자칫 그 자체의 무자비하고 파괴적 측면과 반사회적 결과에 대한 너무 순진한 태도를 불러오고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를 가져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안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은 그것을 너무 쉽게 볼 때나 너무 두려워하며 외면할 때 모두 가장 파괴적이다. 용은 언제나 개인적 사회적 재앙은 우리 안에 무서운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일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으며, 그 설정과 그 실체를 용감하게 직면할 때 인간은 세계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²⁸⁾ 본 민담에서 주인을 죽이고 하인이 주인이 되는 것은 늙은 왕이 젊은 왕으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학적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을 죽이고 기존의 의식의 태도는 완전히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측면의 어느 한쪽도 해치지 않은 채, 그리하여 삶의 흐름을 침해하지 않은 채 그림자와의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가능성과는 다른 것이다.¹²⁹⁾ 인간 내면의 트릭스터적인 요소들이 한편으론 지성의 발

126)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앞의 책, p152.

127)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양심", pp131-132.

128) 이부영 (1999): 앞의 책, p81.

129) Von Franz (1995): Ibid., p100, p106. 폰 프란츠는 자아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도덕적으로 경직되고 일방적인 자세로 그림자에 반항한다면 갈등은 첨예화되고 힘을 소모하게 되며 상황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이런 서구 문명의 문제에 대비해 동양에서는 빛과 그림자, 선과 악이 상대적 가치이며 적대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악의 세력에 더 부합되는 훨씬 더 올바른 내적 자세라고 말한다. 폰 프란츠는 또한 그림자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만약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두 극단 사이의 하나의 자세, 즉 관용적인 행안을 지닌 통용 가능한 중앙의 길을 발견할 것이며, 자기(Self)만이 올바른 정도와 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달과 함께 인류문명 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 인류를 집단적인 팽창상태로 빠지게 하였음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융은 <분석심리학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시대의 마귀에 대해 논하면서 원자폭탄을 들어 “강박적인 발전 속에 이제 하느님의 힘이 우리 허약한 인간의 손에 들어왔으며, 문제가 되는 힘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는 나쁜 인간의 손에서는 무서운 위협을 지닌다.”고 말하며 ‘악은 무서운 현실’임을 강조하고 우리 자신 안의 ‘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촉구하였다.¹³⁰⁾

4. 트릭스터와 자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릭스터 원형의 창조적 측면을 위해 자아가 취할 태도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성(Intelligence)의 한계 인식

민담 속 하인의 두드러진 특성은 꾀와 속임수에 능하다는 점이다. 꾀로 주인의 것을 빼앗고 결혼까지 하며 목숨의 위기도 모면한다. 또한 즉흥적인 재치와 어이없게 만드는 말재주로 장난을 치고 희롱하며 사람들을 웃기는 익살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꿈쩍 못 하게 하는 꾀와 재치는 지성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속이기’란 사실이 아닌 거짓을 꾸미거나 상황과 다른 엉뚱한 말을 통해 상대가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를 교란해서 이득을 얻는 행위이다. 그러나 ‘속이기’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빠꾸기의 탁란이나 제인 구달이 관찰한 침팬지의 상대를 속이고 먹이를 혼자 빼돌리는 행동 등을 볼 때, 자연의 선택 과정에서 지구를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발생한 하나의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아동 역시 성장하여 만 3세가 되면 50%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발달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속일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속임수란 상대방의 제한된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더 높은 인식 수준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폰 프란츠는 인간이 자연과 타인들에 대한 권력을 얻는 것은 적나라한 권력

13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분석심리학에서 선과 악”, p148.

아니면 지식과 지능을 통해서이며, 힘과 지능은 권력 충돌의 두 측면이라고 하였다. 많은 원시적 동물 이야기들에서 교활하고 지능적인 놈이 힘센 놈을 이긴다.¹³¹⁾ 그녀는 야만적인 힘이 아니라 위트(기지, 재치)와 지식과 지능으로 악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원형적 주제임을 말하고 있는데,¹³²⁾ 앞서 살펴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국 신화들에서도 힘보다는 지능과 인식이 갖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정신적 역사에서 인지혁명 이후 지성의 발달이 동물적이며 본능적인 무의식적 정신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인지의 발달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혁명적인 사건으로, 무력적인 방식이 아닌 지성을 통해 동물 단계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인간의 지성은 프로메테우스처럼 신의 영역에 속했던 온갖 기술과 문화, 자연에 대한 지배를 인간에게 가져왔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오만을 가져왔고, 오늘날 우리는 의식 발달에 따라 더욱 짙어진 그림자에 대해 눈먼 채 악의 도래에 속수무책인 상태에 처해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만큼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폰 프란츠는 지식에 대한 욕구는 지식에 포함된 권력을 지식을 통해 지배하려는 데몬적 충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¹³³⁾ 우리가 지성에 더욱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오만에 빠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모르며 우리는 악에 더 가까이 와 있다.

융은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에서 꿈꾼 이의 꿈에 등장한 '뿔족한 턱수염을 가진 고용인', 즉 파우스트가 고용한 메피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에 대해 논하고 있다.¹³⁴⁾ 메피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성'을 나타내는데, 전체의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절대적 지배권을 누리게 된 모든 정신 기능의 악마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꿈에서 지성은 꿈꾼 이에게 처음 차지하고 있던 최고 심급의 위치에서 봉사자로 서열이 강등되며 개성화 과정에서 지성과 전체 정신과의 위계질서가 꿈꾼 이에게 새로이 파악되고 있다고 융은 언급하

131)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영원한 소년과 창조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p275.

132) Von Franz ML (1995): Ibid., p297.

133)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Ibid., p275.

13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 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pp89-90, pp143-148.

였다. 용은 지성은 우리가 자신의 통찰력(‘비추어보기’)으로써 스스로를 재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며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자이지만, 그것이 토대를 상실하고 사색하기 시작해 끝을 모르고 날아오르는 직관의 유희를 받을 경우, 상황은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꿈꾼 이의 꿈에 전체성의 상징인 둥근 공이 지성의 안내를 깨뜨리고 꿈꾼 이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추락시킨다.¹³⁵⁾ 약을 해결할 해법으로서 지성은 한계임을 시인해야 하며, 전체를 통합하여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전체 정신과의 연결이 시급하다고 용은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한편으로, 인간의 궤와 지성이 우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역시 생각해보게 된다. 선악과를 베어 물고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존재가 된 것은 구약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원죄이지만, 그것 역시 신의 의도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인간의 지성은 ‘자기 인식’이라는 새로운 발명을 한 우주의 한 측면의 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될 도구가 될지는 허약한 모순덩어리인 인간의 손에 있다.¹³⁶⁾

2) 고통(Suffering)의 체현

억압되어 보상되어야 할 부분이 그림자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려야 하지만,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서는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용은 말한다.¹³⁷⁾ 그림자는 자기 인격의 전체를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도덕적 문제라는 것이다.¹³⁸⁾ 자신의 인격에 어두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모든 자신에 대한 인식의 필수적인 토대를 이루지만 그러한 인식은 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용에 따르면 그림자를 형성하는 어둡고 열등한 성격의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성과 강박적인 집착성, 걱정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강박적 걱정은 항상 적응이 가장 덜 된 부분에서 일어나며 적응의

13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앞의 책, pp89-90, pp143-148.

136)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분석심리학에 서의 선과 악”, p148.

137) Jung CG (1969):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p23.

138) Jung CG (1969): *Ibid.*, p23.

약화, 인격의 낮은 수준을 노출시킨다.¹³⁹⁾ 그러나 용은 의식이 억압하여 무의식에 가라앉아있는 정신의 타 요소들은 동물적 미개한 요소들이며 겉보기에 낮고 열등한 성격을 지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 실존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적 성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⁴⁰⁾ 즉, 그 안에 창조성이 담겨있는 무의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보고 절망과 무능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림자를 진지하게 통합하려면 그런 면을 받아들일 때의 수치심과 고통의 체험을 피할 수 없으며, 단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표현하는 도덕적 갈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림자가 긍정적으로 변하며 비로소 그림자를 의식화하게 된다.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할 때 우리는 민담 속 상전처럼 그림자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고 그림자 인식에 저항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구연되는 민담을 들으면서 하인의 행동에 의구심과 갈등을 느끼며 청중은 이미 한 번 마음속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인을 처벌하려 매다는 행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도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트릭스터는 결국 놓여 나가거나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암시처럼 그림자와 트릭스터는 자아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이며 영원히 반복되며 우리와 함께 하는 문제이다.¹⁴¹⁾ 오히려 그림자와 트릭스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순성이 주는 고통과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경험은 죽음과 재탄생을 향한 어두운 밤 항해(night sea journey)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트릭스터 신들이 구세주로서 인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악을 바라면서 선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힘의 일부'로서,¹⁴²⁾ 트릭스터의 행동이 흔히 선하거나 선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지만 인간에게 선을 불려오기도 한다.¹⁴³⁾ 그러니, 그들의 활동은 환영할 수는 없지

139) Jung CG (1969): Ibid., pp22-23.

140) Jung CG (1969): Ibid., p380.

141)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pp196-198. 용재총화에서는 물리칠수록 굶어져서 작은 뱀이 큰 구렁이가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벽장에 넣어서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단적 그림자는 제거되거나 의식화될 수 없으며 인식하고 관조하고 주의할 수 있을 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이다.

142) 이부영 (2020): 《괴테와 용-파우스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길사, 서울, p112f.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다.

143) 왓슨카가는 말썽을 피우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수물로 인간에게 식용 식물들을 가져다주고, 오마하족의 토끼는 할머니가 떡을 심장의 지방을 얻으려다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언덕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도려내 죽임으로써 사람들을 구해낸다.

만,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 작용하는 역할을 승인받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림자 원형상은 인식하고 관조하며 주의할 수 있을 뿐, 인간의 자아가 의식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감정적 관계성으로서의 에로스(Eros as emotional relatedness)

융의 〈옴에의 회답〉을 살펴보면 융은 인간이 인식하고 갈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훼에 대한 옴의 승리가 가능하였다고 보는 듯하다. 인간은 신 자신이 모순성을 가졌음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정신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성으로 이루어졌음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특별하다. 그런데 이런 모순성에 대한 진정한 성찰은 타인이나 현실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무겁게 체험할 때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열등하며 문제적 존재인지를 가족과 사회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깊은 상처와 함께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마음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대극이 동시에 존재함을 삶을 통해 인식할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

폰 프란츠는 부르노 괴츠의 소설 〈공간없는 나라〉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에서 주인공 멜히오르의 사후의 재판 장면, 특히 그가 생전의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아내가 수놓아준 실내화를 신지 않았고, 동료들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등의 그의 관계맺음의 부재에 대해 시탄받는 부분에 대해 말한다.¹⁴⁴⁾ 멜히오르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아내 조피는 파괴적이고 편협한 인물로 변한다. 멜히오르는 차가운 나르시시즘으로 완전한 지성주의 안으로 도망쳤고 자기 삶에서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¹⁴⁵⁾ 본 민담에서 자연스런 감정과 본능을 무시하는 주인의 태도는 멜히오르와 유사하다. 양반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과 선한 의지에 대한 기대와 훈련을 강조하고 인간의 본능에 대한 정신성의 우위를 낙관하는 태도를 상징하며, 파우스트의 출발점인 인간 의식과 지성의 팽창적 태도와 맥을 함께 한다. 본 민담에서는 막내 누이와의 혼인으로 하인은 주인집의 식구가 된다. 즉 강제로 주인과 하인 사이에 관계성이 생기며 상호 변환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으로 상징되는 자아의 지성을 신봉하는 팽창된 태도는 그림

144)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앞의 책, pp284-285.

145)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앞의 책, pp284-285.

자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냉정히 부인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만일 대극갈등에서의 고통을 솔직히 수용하고 그 감정에 머무를 수 있었다면, 아니마를 수용할 수 있었다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창조적인 해결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창조적인 해결은 무의식으로부터 온다. 민담 '충직한 페르디난트와 불충직한 페르디난트'에서 충직한 페르디난트가 왕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있을 때 왕비가 행동한다. 그녀는 왕의 머리를 자르고 충직한 페르디난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결혼을 하게 된다. 폰 프란츠는 '아니마와 개신(改新)'이라는 제목 하에 민담의 이 부분을 해석하며 "우리의 민담에서는 아니마의 형상이 코 없는 왕의 머리를 자르고 아무도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움으로써 완전한 역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해결은 무의식에서 온다. (중략) 우리는 제3의 가능성이 출현할 때까지 갈등을 견디어야 한다."라고 말한다.¹⁴⁶⁾ '지하국대적설화'에서는 도둑 귀신에 잡혀간 원님의 딸 혹은 그녀의 여종이 도둑의 약점을 알고 있어 주인공이 도둑을 물리치고 잡혀간 사람들과 금은보화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올 방법을 알려준다. 이것은 아니마를 통한 관계성의 형성이 그림자 원형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⁴⁷⁾

지성은 삶의 근원의 남성적 측면(phallus)과 관련되며, 우리에게 삶을 관조하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성찰하는 힘을 주지만, 감정과 에로스가 없는 지성은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없게 우리가 삶에서 도피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관계 맺음으로 대변되는 여성성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삶의 모순성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며, 그때 얻어지는 '팽창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전체 정신과의 진정한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에 대한 박애로서의 소피아(지혜)는 우리 자신에게 구현되며 외부 세계와 타인들과의 진정한 관계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¹⁴⁸⁾

4) 팽창(Inflation)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은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자유 평등의

146) Von Franz ML (1995): Ibid., pp105-106.

147) 이부영 (1999): 앞의 책, pp248-251.

148)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앞의 책, pp327-329. 폰 프란츠는 파우스트나 멜히오르가 현세에서 해내지 못했던 선과 악을 함께 사는 인생은 젊은이의 이상주의를 희생하고 여성적인 요소, 즉 아니마를 해방시킬 수 있는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념과 박애정신 같은 고상한 미덕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다른 인간을 약탈하고 악덕을 행하는 모순된 존재이다. 우리는 신적인 사랑과 영적인 깨달음의 내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지만, 완전히 미분화된 야만적인 동물적인 면이 이기주의와 거짓으로 발현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그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내 몸속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즐곤 찢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폰 프란츠는 살 속의 가시는 팽창(inflation) 경험의 반대이며, 큰 환상이나 내적 계시들로 인해 그것들과 동일시하면, 살 속의 가시가 박혀 끊임없이 자신의 열등함을, 비천함과 인간적 불완전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⁹⁾ 즉, 인간은 우리 자신이 완전무결한 신적인 존재와 같을 수 있다는 막연한 착각, 그 오만과 팽창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 명확하고 예리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모순되며 위태위태한 우리의 실존이다. 과거 인류의 역사상 벌어져 온 일들과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강간과 살인, 약탈과 대학살에서부터 그것의 완화된 형태인 타인이나 타국에 대해 교묘히 이득을 취하며 지배를 공고히 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빠져린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런 파괴적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측면이 우리의 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인 나 자신’에게도 ‘있음’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 역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의 양면성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융은 <분석심리학에서의 선과 악>에서 선과 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과 악은 본래 ‘원리(principle)’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¹⁵⁰⁾ 그는 선과 악은 어떤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판단이며, 원리들이 우리의 판단을 사로잡았기에 우리는 부자유한 곤혹스런 상황에 속해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악의 극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방향에서 신에 의해 둘러싸인 하나의 신비적 상황에 있고 신은 소위 ‘선’과 ‘악’을 모

149)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앞의 책, p287.

15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135.

두 다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순전히 이치에 맞는 해결이란 없으며 인간은 자기가 상황을 만드는 자 또는 주인이 아니며 신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자라고 느낀다. 우리는 이런 경우 선과 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높은 힘에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용이 처한 야훼의 대극성에 대한 인식과 그 앞에서 자신이 ‘신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님을 비난하거나 자비를 청하거나 할 수 없는 인간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용은 선과 악의 문제를 대할 때의 중요한 자세로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함을 강조한다.¹⁵¹⁾ 그것은 신들만이 아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하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우리는 놓여있다. 용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너무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여기는 일로 인해 악과 그것의 힘을 경험하고 참아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겪고 위선을 포기하는 무거운 체험을 통해 좋은 일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그림자에서 도망치고 모험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비겁, 퇴행, 천사지향성, 완전무결주의 덕택에 유아성에서 한 걸음도 끌어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정신적인 퇴행이며, 내적인 성장에서의 후퇴, 유아적인 나약성을 의미할지 모른다.”라고 말한다.¹⁵²⁾ 하지만 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은 악한대로 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한다.¹⁵³⁾ 여기서 선과 악의 문제에 맞서는 사람은 그 상황을 자신의 전체로서 반응하도록 도발되며 그의 가장 개인적인 윤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것은 실천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인습적인 도덕을 벗어나 자기 개인의 특수한 경우에 부딪힌 자기 내면의 그림자 문제와 진지하게 씨름할 때 우리는 어떤 누미노즘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고통스런 감정과 함께 더욱 예리한 자기 인식의 기회를 가져온다. 용은 그런 대면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동시에 밝은 면을 보게 되며 동시에 양 측면을 보며 이로써 중앙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⁴⁾ 그것은 아트만과 도(道)와 같은 것이고 정신적 전체성이다. 또한 그는 ‘어둠과 광명의 대극을 함께 관조함으로써 대극성으로부터 나

151)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p135-139.

152)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140.

153)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141.

15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p144-146.

를 해방시켜 중심에 도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 대극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대극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창에 찢려 이그드라실에 매달림으로써 룬 문자를 발견하는 우리 내면의 보탄신이 겪는 고통과 인식의 원형적 주제일 것이다. 또한 본 민담에서 하인이 자기(Self)를 상징하는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자와 악은 자아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이며 자아가 상대해 제거하려 할 때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진다. 자아가 팽창으로부터 놓여나 그림자 문제를 자기(Self)에게 가져오고 계속 고통받는 상태에 머물러있어서 자기의 초월적 기능을 통해 변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나가는 말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 민담은 유쾌하면서도 섬뜩한 트릭스터의 이야기이다. 트릭스터 민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들으며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불러내어 체험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그림자를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해방시키고 의식과 접촉할 기회를 주며 따라서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식화의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으론 원형적인 그림자를 조심하고 경계하며 관조하게 하는 목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트릭스터 민담은 그 자체로 트릭스터 원형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트릭스터의 이해할 수 없는 파괴성이나 설명할 수 없고 의미없어 보이는 행동들은 우리 삶의 역설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는 삶의 현상과 원리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선불교의 선문답처럼 인간의 의식적 사고의 필수조건인 의식체계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순을 던져주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틀의 한계를 인식하고 벗어날 기회를 준다. 즉 우리의 인식이란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여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비로소 투사가 거두어지면서 부수어지고 새로 세워져야 함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트릭스터 원형상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연의 힘을 상징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간 역시 대극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대극 그 자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에게 존재하는 대극의 모순성을 고통스러워하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정신적 특성과 동

물적 현실이라는 대극성은 늘 우리를 갈등과 고통에 빠지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다 높은 의식성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극의 작용은 신적인 작용이며 자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또 다른 모순성을 우리는 경험한다. 본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저자는 저자 자신은 물론 인간의 열등함과 추악함에 몸을 떨고 그 보잘것없음에 머리 숙이게 되었다. 그런데 또한 모순된 것은 그것이 가장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과 인간애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생명을 일으키고 나아가는 미지의 힘과 원리의 일부이고 발현이라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짐을 털고 자신의 실존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로서의 '나'가 주인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전체 정신의 부분으로서 '나'의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2003):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서울.
- 김대숙 (1994): “설화에 나타난 계층의식 연구”,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서울.
- 김현선 (1990): “건달형 인물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 8, 경기대학교국어국문학회, 수원.
- 나수호 (2002):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 _____ (2011):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방향중, 정만서, 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 두산백과 두피디아: “크리슈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신동훈 (2004):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서울.
- 신연우 (2003):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서울.
- 유원수 (2014): 《세계민담전집》, 3권 몽골편, 황금가지, 서울.
- 이부영 (1999):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① 《그림자-우리 안의 어두운 반려자》, 한길사, 서울.
- _____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 _____ (2020): 《괴테와 융-파우스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길사, 서울.

- 이승철 외 (2012): “석탈해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 이승철 외 (2012): “주몽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 임석재 (1936): 《한국구전설화》, 3권, 평민사, 서울.
- 정용선 (2002): “상전속이는 하인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동일 (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권, 동아출판사, 서울.
- _____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 2권, 동아출판사,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 關 敬吾著, 小澤俊夫補訂 (2013): 日本昔話の型, 三角商事株, Fukuoka.
- Chevalier J, Gheerbrant A (1997):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Cooper JC, 이윤기(역) (2007):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글방, 서울.
- Eliade M, 이동하(역) (1997): 《성과 속-종교의 본질》, 학민사, 서울.
- Eliade M, 최중성, 김재현(역) (2005): 《세계종교사상사》, 2권, 이학사, 서울.
- Faurot JL (1977): “Hsu Wen-ch’ang: an Archetypal Clever Rascal in Chinese Popular Culture”, *Asian Folklore Studies*, 36(2), pp65-74.
- Grimal P (1991): *Dictionary of Classical Mythology*, Penguin Books, London.
- Jung CG (1969):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_____ (1984): *Dream Analysis I: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28-30*, Routledge, Abingdon-on-Thames.
- Jung CG, 이부영(역) (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융 기본저작집 제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 Propp V, 최애리(역) (1990):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 지성사, 서울.
- Radin P (1972):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 Rankle K et al. (2010): *Enzyklopädie des Märchens*. vol 13. De Gruyter, Berlin.
- Thompson S (1955-1958): *S. Thompson.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 a classification of narrative elements in folktales, ballads, myths, fables, medieval romances, exempla, fabliaux, jest-books, and local legends*,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Von Franz ML (198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_____ (1980): *Psychological Meaning of Redemption Motif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_____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영원한 소년과 창조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2, 37 : 2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the Folktale ‘the Servant Who Ruined
the Master’s House’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Centering on the Trickster Archetype**

Myoungsun Roh, M.D., Ph.D.*

Through this thesi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the Korean folktale ‘the servant who ruined the master’s house’ was examined. The opposition between the master and the servant is a universal matter of the human psychology. It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the hardened existing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the new consciousness to compensate for and renew it. From different angles, it has become the opposition between man’s spiritual and instinctive aspects,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or between the ego and the shadow. In the folktale, the master tries several times to get rid of the youngest servant, but the servant uses tricks and wits to steal food, a horse, the youngest sister, and all money from the master, and finally, take his life. It ends with the marriage of the youngest sister and the servant. Enantiodromia, in which the master dies, and the servant becomes the new master, can be seen that the old collective consciousness is destroyed, and the new consciousness that has risen from the collective unconscious takes the dominant position. In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itu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existing attitude of the ego is dissolved and transformed into a new attitude.

In the middle of the story, the servant marries the youngest sister by exploiting naive people to rewrite the back letter written by the master to kill him. This aspect can be understood negatively in the moral concept of collective consciousness, but it can also be seen as a process of integrating mental elements that have been ignored in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Joseon Dynasty, symbolized by a woman, a honey seller, and a hungry Buddhist monk. The new

consciousness, represented by the serva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rickster that is not bound by the existing frame, so it can encompass the psychological elements that have been ignored in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Such element may represent compensation or an alternative to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aster puts the servant in a leather bag and hangs it on a tree to kill the servant. However, the servant deceives a blind man; he opened his eyes while hanged. Instead of the servant, the blind man dies, and the servant is freed. As the problem of the conflict between master and servant is finally entrusted to the whole spirit (Self) symbolized by a tree, the blind man gets removed. It can be understood as an intention of the Self to distinguish and purify the elements of recklessness, stupidity, and greed included in the trickster. Through these processes, the servant, which symbolizes a new change in collective consciousness or a new attitude of ego, solves the existing problems and takes the place of the master.

While listening to the cunning servant's performance, the audience feels a sense of joy and liber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part where the blind man and the master's family die instead and the servant becomes the master, they experience feelings of fear and concern about the danger and uncontrollability of the servant. The tricksters appearing in foreign analogies are also thoroughly selfish and make innocent beings deceive or die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s and escape from danger. Efforts to punish or reform these tricksters are futile and they run away. Therefore, this folktale can also be seen as having a purpose and meaning to let us know that this archetypal shadow is very dangerous and that consciousness cannot control or assimilate it, but only awe and contemplate it.

Trickster is an irrational manifestation of revivifying natural energy that rises from the unconscious as a compensation for hardened existing structure and order. The phenomenon may be destructive and immoral from the standpoint of the existing collective mind, but it should be seen as a function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a more fundamental psychic function that cannot be morally defined. The servant, a figure of the trickster archetype, is a being that brings transformation and has the duality and contradiction of destructiveness and creativity. The endings of this folktale's analogies are diverse, reflecting the diversified response of the audience's mind due to the ambivalence of the trickster, and also suggesting various responses toward the problem of the trickster from the unconscious. It also shows that the trickster is a problem of inconclusive and con-

troversial contradictions that cannot be controlled with a conscious rational attitude, and that we can only seriously contemplate the trickster archetype within us.

KEYWORDS : Creativity; Destructiveness; Fairy-tale; Good and evil; Shadow; Trickster.

**Dr. Roh's Psychiatric Clinic, Seoul, Korea*